

중국 증시 '검은 월요일'

metro®

메트로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제3267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7일>

코스피	2038.81	(-7.15)
코스닥	751.04	(-25.22)
금리(국고채 3년)	1.71	(-0.01)
환율(원·달러)	1167.00	(-3.40)



전기차도 베낄건가

이미 전자산업화된 자동차… 애플·中 등 진격중
인프라 갖춘 삼성, 이해 안 되는 머뭇거림 지속
"최지성팀, 3세승계 골몰 미래전략엔 엉거주춤"

'글로벌 IT 공룡' 애플과 삼성이 전기차 시장 진입을 놓고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애플이 전기차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삼성은 확실한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전기차도 스마트폰의 판박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애플이 전기차 로드맵을 완성해 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시장 진입이 더딜수록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스마트폰과 같은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으로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7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독일 자동차 제조사 BMW와 전기차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BMW의 전기차 i3를 '애플카' 플랫폼으로 염두에 두는 것으로 관측된다. i3는 4인승 소형 해치백으로 한번 충전에 최대 15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도 전기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쿡 CEO는 애플 고위 임원과 함께 독일 라이프치히의 i3 생산라인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공식적으로 '애플카'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쯤 사과 마크가 달린 전기차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 애플은 최근 자동차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재를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현재 수백여명이 애플의 자동차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애플이 전기자동차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우선 미래 성장동력 확보다. 최근 시장조사기관 트랜스퍼런시 마켓 리서치는 2019년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를 2716억7000만 달러(약 317조원)로 예상했다.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애플은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는 전기차 시장에서 정보기술(IT)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석연료 자동차와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Iot)의 집합체로 평가받는 전기차의 전장기술과 운영체제(OS) 등에서 IT 기업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의미다.

삼성 역시 전기차 시장을 주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은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3094건의 자동차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

삼성의 이 분야 특허는 구글과 애플을 앞선다. 특히 삼성은 지난해만 632건의 자동차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간 구글과 애플의 자동차 관련 특허는 각각 147건, 78건이었다. 삼성의 자동차 특허를 분석한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삼성이 배터리와 연료전지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는 삼성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Iot와 OS 타이젠을 밀고 있고, 삼성 SDI는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은 전기차 관련 소프트웨어·하드웨어·제조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는 몇 안되는 기업 중 하나다. 그러나 삼성은 전기차 시장 진입에 보수적이다. 삼성 관계자는 "아직 내부에서 전기차 계획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일부에서는 더 늦기 전에 삼성 컨트롤타워의 미래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기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제품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뒤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경우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중국 전기차·배터리업체 비야디(BYD)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도 BYD 투자자 가운데 한명이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버핏 회장 역시 BYD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BYD를 미국 테슬라의 잠재적 경쟁 상대로 평가하는 외신들도 있다. BYD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중교통업체인 '롱 비치 트랜싯(Long Beach Transit)'에 전기차 버스를 공급한데 이어 멕시코 대중교통업체인 STEA사와 전기차 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세를 키우고 있다. 내년에 한국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삼성이 제시한 '5대 신수종' 사업이 대부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바이오 사업도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최지성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미래전략실이 이재용 부회장 체제 확립에만 전력을 쏟으면서 어젠다 세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 역시 "애플이 전기차 계획을 세우는 것은 미래 수익확보 목적도 있지만 장기 비전을 제시해 주가를 부양하려는 측면도 있다"며"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84조원으로 애플 864조원의 4분의 1도 안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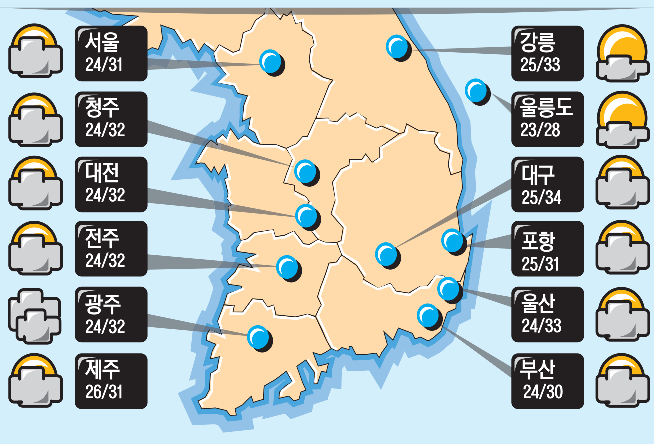


5년 안에 전기차를 시판할 계획인 애플이 '애플카'의 플랫폼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BMW i3. /BMW 제공

날씨

7/28 화 일출시각 05:32 일몰시각 19:4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경제·산업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6일 현재 9412건으로 지난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 거래량이던 지난 2009년 동월(9005건)을 넘어섰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땅값**이 지난 6월 기준 56개월 연속 상승하는가 하면, 올 상반기 전체 토지거래량은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 정부는 정년 연장 등 사회 여건의 변화로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과 손을 잡고 오는 2017년까지 정규직 8만8000개를 포함해 총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마련키로 했다.

▲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두고 고객을 대상으로 함부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현대자동차가 한국전력을 제치고 **시가총액** 순위 2위로 다시 올라섰다. 현대자동차는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에 힘입어 27일 일제히 상승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31조9401억원으로 한국전력(30조5896억원)을 넘어섰다.

▲ 애플과 삼성이 전기차 시장을 두고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 애플은 **전기차**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삼성은 확실한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다.

▲ 테리 스팰 마이라 테크놀로지 파크 상무이사는 **우리 자동차 부품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통할 기술력을 지녔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벗어날 왔음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 국민 10명 중 3명은 PC와 모바일을 이용하면서 **보안 수칙**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트소프트가 27일 발표한 '2015 사용자 정보보호 보안인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PC와 스마트폰 사용자 7천644명 가운데 33.2%는 보안 수칙을 전혀 실천하지 않거나 안내가 있더라도 무시한다고 응답했다.

▲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 발길이 끊겨 고심에 빠진 화장품 업계가 대규모 할인 행사에 발 벗고 나섰다. 7월 **서울썸머세일**을 시작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프로모션이 4개월간 이어진다.

▲ GS홈쇼핑이 T커머스 채널 **'GS마이샵'**(GS MY SHOP)을 공식 개국했다. 100% 맞춤 VOD로 구성되며 방송은 중소기업 상품을 우선으로 편성될 계획이다. '스카이라이프 채널 41번·올레TV 38번'

정치·사회

▲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내 직을 걸고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없다"며 "(국정원이 구매한 해킹프로그램인) RCS 가지고는 카카오톡도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입증자료는 의원들이 국정원을 방문할 때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RCS**는 소프트웨어로 (현행법상)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며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국정원이 로그파일 등 자료를 제출하면 국회 정보위 위원으로 활약하기 위해 안랩 보유주식을 백지신탁 하겠다고 말했다. 규정상 보유 주식과 관련된 상임위 참여를 위해서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 여야는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문제와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 27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 정부 **주파수심의위원회**는 황금주파수인 700㎒ 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 확정했다. 지상파 UHD방송의 선도적 도입을 위해 방송에 30㎒폭, 이동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에 40㎒폭 분배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맡기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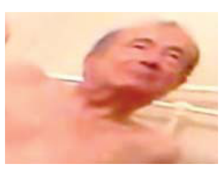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남양주을) 의원을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 전국 137개 전문대의 2016학년도 **수시모집**이 9월3일 일제히 시작돼 전체 모집인원의 84.1%인 18만1천106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선발 비중은 전년도의 82.3%보다 소폭 증가했다.



메르스 사실상 '종식'…인천 방문한 '유커' 정부가 사실상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종식을 선언한 가운데 27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항으로 중국 관광객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

▲ 

존 시웰 영국 상원 부의장이 창녀들과 코카인 파티를 벌이면서 "아시아 여자들은 좀 순진해 보인다. 하지만 당신들도 알다시피 그들은 창녀다"라고 말해 전세계적인 파문이 일고 있다. 시웰 부의장은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 27일(현지시간) 사임했지만 상원의장은 경찰조사를 긴급 요청했다.

▲ **중국 주식**시장이 27일 다시 폭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오후 4시 전날보다 345.35포인트(8.48%) 폭락한 3725.56, 선전종합지수와 홍콩 항셍지수도 각각 7.00%와 3.08% 급락했다.

▲ 중국의 **칭화유니그룹**이 미국의 마이크론 인수를 통해 제2의 삼성반도체를 노리는 가운데 중국의 벤처캐피털인 GSR이 IT과 바이오 부문에서 글로벌 기술사냥에 나서 삼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 **그리스** 정부가 은행 폐쇄에 대비해 유사지급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비밀계획을 수립하고 드라크마화 복귀를 시도했다는 문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 잇따른 막말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CNN 방송이 전국 전역에 걸쳐 실시한 첫 전화여론조사에서 또 다시 공화당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 휘트니 휴스턴 딸 **바비 크리스티나 브라운**(22)이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익사로 생을 마감했다. 브라운은 지난 1월부터 반년 가까이 의식불명 사태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었다.

▲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그가 추진 중인 안보관련 법안이 참의원(상원) 본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사회가 들고 일어나 전쟁을 허용하는 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 다음달 공식 개통을 앞두고 있는 **제2의 수에즈운하**에서 화물선이 성공적으로 시범 통행을 마쳤다. 운하가 개통하면 선박들의 항해시간이 22시간에서 11시간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카톡 도청 불가능… 현장 오면 증거 제시"

국정원, 민간인 해킹의혹 해명 '증거제시'는 미뤄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해킹프로그램인 원격제어시스템(RCS)으로는 카카오톡 도청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국내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해킹 의혹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대답이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직을 걸고 불법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불법사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핵심 아니겠느냐. 이 원장께서 자신있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내국인에 대한 불법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입증자료를 의원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았다.

정보위 소속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체적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도 볼 수는 없었다. 우리가 국정원에 오면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이 원장이 우리가 데리고 가는 기술자들에게 (자료를) 열람·공개는 못 하지만 국정원의 기술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며 "오늘 제출된 자료는 전혀 없는데 이 원장이 굉장히 결백을 주장해 내가 다 설득이 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요구한 로그파일 등 자료에 대해서는 "국내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톡 도청 문제는 민간인 사찰 의혹에서 핵심 쟁점이다. 해킹으로 유출된 해킹팀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국정원을 가리키는 '육군 5163부대' 관계자가 해킹팀사와 직접 만나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술의 진행 상황을 물은 것으로 나와 있다. 비슷한 시기 해킹팀사 직원들 사이에 오간 이메일에는 "한국이 카카오톡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물었다"는 내용과 "연구·개발팀에 카카오톡에 대해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회의 당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북한과 연계된 공작원들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어 해킹 기술 개발을 문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해킹을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일 뿐 시민을 대상으로 해킹한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정원 기자 garden@metroseoul.co.kr

삭제자료는 51건… 자료 안주고 설명만

국정원이 27일 국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임모 과장이 자살 전 삭제한 자료는 모두 51개다. 이 중 대북·대테러용이 10개, 국내 실험용이 31개, 나머지 10개는 대북 감시용으로 해킹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자료라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복원한 자료를 국회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자료 제출은 처음부터 로그파일 원본은 안 된다고 국정원에서 얘기했고, 새누리당도 단호하게 그 자료의 제출은 안 된다고 했다. 대신 오늘 삭제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철수 "안랩주식 백지신탁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안랩 주식 백지신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승부수를 띄웠다. 대신 국가정보원에 로그파일 등의 자료제출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규정상 보유주식과 관련된 상임위 참여를 위해서는 백지신탁이 필요하다.

안 위원장은 27일 오후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측이 안 위원장의 정보위 참여를 요청한다'는 기자의 말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라며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정보위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로그 파일 자료 제출 △로그 파일 분석을 위한 최소 5명의 전문가 참여 △파일 분석을 위한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과 분석 공간 확보 등이 조건이다. /윤정원 기자



존 시웰 영국 상원 부의장의 섹스파티 동영상. /유튜브 캡쳐

英상원 부의장 "아시아女는 창녀"

"아시아 여자들은 좀 순진해 보인다. 하지만 당신들도 알다시피 그들은 창녀다(Asian women look innocent but you know they're whores)."

영국 상원 현직 부의장의 섹스파티 동영상과 동영상에 담긴 그의 막말에 세계가 들끓고 있다. 존 시웰 부의장은 자신의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다음날인 27일(이하 현지시간) 부의장 자리를 사임했다.

전날 영국 대중지 더 선은 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시웰 부의장의 섹스파티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창녀 두명과 옷을 벗은 시웰 부의장이 등장한다.

시웰 부의장은 코카인을 흡입하다 창녀들에게 아시아 여자들은 모두 창녀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그것(순진한 인상과 창녀라는 점)은 정말 멋진 조합이지 않아"라고 덧붙인다.

그리고는 "오늘밤 생각지도 못한 몇 명의 작고 어린 멋진 아시아 여성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염려마라"고 말한다.

창녀 중 한 명이 "아시아 여자의 어디가 좋으냐"고 묻자 그는 "때때로 지하철을 타고 런던을 돌아다닐 때면 그들이 날씬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 꽤나 매력적"이라고 말한다.

/송병형기자 bhsong@

국정원 RCS는 감청장비 아니라는 정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도입한 해킹프로그램을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로 감청설비의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해킹프로그램 중개업체인 나나테크가 원격제어시스템(RCS)을 신고 없이 구입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원 기자

삼성 위협하는 중국…반도체 이어 인터넷·바이오 사냥

반도체, IT, 바이오 등 삼성이 강세인 분야에서 중국의 위협이 본격화되고 있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중국이 내수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수입품을 대체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의 벤처캐피털 회사인 GSR벤처는 50억 달러(약 6조원)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인터넷과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기업 인수에 나선다.

이는 중국 베이징 당국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전해진다. 중국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온 첨단기술을 손에 넣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 국영 반도체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은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230억 달러(약 27조원) 규모의 인수 제안을 하기도 했다.

WSJ는 자동차와 스마트폰 분야에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이 기술사냥을 통해 수입품을 대체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특히 GSR벤처가 노리는 인터넷과 바이오 분야는 중국이 핵심 성장시장으로 삼고 있다. 이 시도가 성공할 경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GSR벤처는 중국 IT 기업인들이 2004년 설립해 중국에서 급성장한 스타트업들에 투자해 명성을 날렸다. /송병형 기자



워커 장군 묘에서 절하는 김무성 대표 일행 6·25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동행 의원들이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 내 워커 장군의 묘비에 절하고 있다. 워커 장군은 6·25 전쟁영웅이다. 오른쪽 부터 강석호, 김영우, 김학용, 김무성, 이군현, 장윤석, 양창영, 심윤조 의원. /연합뉴스

"가사사건 성공보수도 무효되나"

변호사업계 긴장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의 여파로 가사사건의 성공보수도 무효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변호사업계에 조성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보다 가사사건을 수임하는 개인 변호사와 생계형 변호사가 많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 이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일선 변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은 이번 판결로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받는 관행을 금지하려는 사회 분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태부 변호사(제이앤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들이 처음 사건을 수임하고 입문하는 주 분야가 가사사건"이라며 "만약 가사사건 성공보수가 금지된다면 성공보수 무효에 대한 변호사들의 체감은 비교도 안되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가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판결이 난다면 변호사업계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변호사들의 입문을 가로막는 처사가 될 것"이라며 "당초 대법원이 의도했던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부정부패 척결의 취지가 변질될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사건분야의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이상 다른 분야 사건의 성공보수에 대해서도 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가사사건 성공보수까지 무효로 이어진다면 개인 변호사의 생계에 타격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변호사협회(ABA)의 모범윤리장전에서 가사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런 원칙은 연방법원·주법원의 판례에 의해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 채권회수 등 민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이 기자

메르스 사실상 '종식'

마지막 격리자 격리해제 대국민 메시지 발표예정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한 마지막 남은 1명의 자가격리자가 27일 0시 부로 격리 해제됐다. 이르면 정부는 내주초 '메르스로 인한 우려가 없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마지막 메르스 자가격리자가 이날 0시에 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 메르스 환자 A씨(68)에게서 비롯된 자가격리자 중 마지막인 1만6693번째 격리자가 일상으로 복귀한다. 대책본부는 격리자 수가 '0'이 되는 이날 오전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 제4차 회의를 개최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마지막 자가격리자의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중앙로비 입구에 방문객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

이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차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현장 전문가, 대한감염학회 등 민간 전문가들이 메르스 대응 수위에 대한 의견을 모아 국무총리 주재 메르스대응 범정부 대책회의에 전달할 예정이다.

범정부 대책회의에서는 '메르스로 인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자체 종식 선언에 버금가는 대국민 성명이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메르스 누적 환자 수는 186명으로 이달 5일 이후 22일째 새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 치료중인 환자 12명 가운데 11명은 메르스 바이러스에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메르스에서는 완쾌했으나 욕창, 호흡곤란 등 후유증으로 일반 병실에서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메르스 환자 1명도 상태에 따라 메르스 음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이 환자가 메르스에서 완쾌하는 날을 기준으로 28일(메르스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의 2배) 후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른 공식 메르스 종식일이 된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경북 첫 벼베기 27일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들에서 전업농 이상철(47)씨가 논에 심은 벼를 수확하고 있다. 이씨는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벼를 수확했다. /연합뉴스

한 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에 이혼소송

法 "아내, 배려 부족" 남편 청구 받아들여

법원이 한 달에 용돈을 10만 원 준 아내가 결혼 생활에 파탄을 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7일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만나지 않는 점,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와 만난 지 7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다. A씨는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모두 B씨에게 갖다 줬고 한 달에 10만~20만원씩 용돈만 받으며 생활했다. B씨는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돈 관리를 도맡아 했다.

A씨는 용돈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 아르바이트로 건설 현장 노동일을 하기도 했다. 결혼한 지 4년 가까이 되던 해 겨울 어느 날 폭설로 근무지에 비상이 걸려 A씨가 퇴근하지 못하고 다음날 집에 갔는데, B씨는 몸이 아픈 자신을 혼자 뒀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지병을 치료하겠다고 친정에 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며칠 뒤 갑작스러운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가려고 아내에게 병원비 1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송금하지 않고 A씨를 찾아왔다. 화가 난 A씨는 B씨를 만나지 않고 휴대전화로 이혼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받아 이사비 등으로 쓰고 나머지 3800만원을 B씨에게 송금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부담하는 28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를 갚아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이를 갚지 않고 그냥 보관했다.

A씨는 결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4인가구 월소득 127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

내년부터 중위소득 인상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 첫날인 20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가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19길 신규보호 가정을 방문해 이모씨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0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1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3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265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이달부터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다르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제기

"계약자유·평등권 위반"

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27일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협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 된다"며 위헌 확인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3일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이 지나치게 많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5다200111)에서 "피고는 성공보수금 중 4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 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사건 종류와 관계없이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무효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한변협은 '판결 폐기'를 요구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감'을 표명하는 등 변호사 업계는 이 판결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성내천 물놀이장 내 피서지문고 개장식 박춘희 송파구청장(가운데)이 27일 서울 송파구 성내천 물놀이장 내 피서지문고 개장식에 참석, 물놀이 나온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옛 동료 보험들게 한 뒤 청부살해

전직 경찰에 징역 30년 확정

함께 근무했던 동료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게 한 뒤 청부살해한 전직 경찰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동료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 칠곡에서 경찰관 생활을 해 온 장씨는 퇴직 경찰관 이모씨에게 2008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원을 빌려줬지만, 원금은 받지 못하고 이자만 받아왔다.

장씨는 2013년 5월 이씨에게 3000만원을 더 빌려주는 대가로 사망시 2억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꿨다.

같은 해 9월에도 850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씨 명의로 1억원의 사망 보험을 들게 한 뒤 보험 수익자는 자신의 명의로 했다.

이 후 장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배모씨를 끌어들여 이씨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했다.

장씨의 사주를 받은 배씨는 지난해 2월 고농도 산소를 주입해 이씨를 살해하려다 이씨가 잠에서 깨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1심과 2심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장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해수욕장 곳곳 안전관리 부실"

안전처, 60곳 실태 점검

정부가 마련한 안전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해수욕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장비와 구조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해수욕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6~10일에 전국 해수욕장 297곳 중 60곳에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각 자치단체에 보완할 사항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은 해수욕장이 많았고 대체로 훈련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 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 민간 등으로 구성되는 해수욕장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라며 "기관 간 협의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으니 합동훈련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남해·제주 권역의 일부 해수욕장은 민간안전요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필요인력을 지역주민에게 할당해 충원하고 있었다.

앞서 안전처는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경찰청, 자치단체가 참석하는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이번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해수욕장 안전관리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예비비·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 부족한 구조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가 해수욕장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해경안전본부는 해수욕장마다 안전지원관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공안부 배당

검찰 수사 착수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서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고발장을 접수한 이 사건을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맡기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이 국가 정보기관의 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과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2005년 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를 공안2부가 맡았던 점 등 과거 수사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배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의혹 사건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다.

고발장에는 국정원이 인가받지 않은 해킹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용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의 구매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찰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해외·북한 정보 수집용이나 실험·연구용으로만 쓰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수사 부서를 결정한 검찰은 일단 고발인인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한 뒤 수사 대상을 압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서이 기자

중국증시 '검은 월요일'… 아시아 동반하락

상해지수, 하루 낙폭으론 8년만에 최대

중국증시가 8% 넘게 폭락하고 그 영향으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27일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45.35포인트(8.48%) 하락한 3725.55로 장을 마쳤다. 하루 낙폭으로 지난 2007년 2월 이후 8년5개월 만에 최대다.

선전종합지수도 7% 급락했다. 홍콩의 항셍지수는 장 마감을 앞두고 3.2% 떨어졌고,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로 구성된 항셍H지수는 4.4%가량 하락했다.

대만의 가권지수는 2.41% 떨어졌다. 한국의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7.15포인트(0.35%) 떨어진 2038.81로 마감됐다. 코스닥지수도 751.04로 25.22포인트(3.25%) 급락했다.

일본 도쿄증시의 닛케이평균주가는 0.95% 내린 20350.10에 마감됐고, 1부시장 전 종목을 반영하는 토픽스(TOPIX) 지수는 1638.04로 1.08% 하락했다.

중국 증시의 이날 대폭락은 중국의 산업생산이 부진한데다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지난 6월 산업생산이 전년동기보다 0.3%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고 블룸버스통신이 전했다.



중국의 7월 차이신(Caixin)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도 48.2로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조만간 끝이 날 것이라는 우려도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외국인들의 매도행진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증시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록적인 매도세를 보였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주가 대책으로 상하이 주가지수는 4000대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의한 '관제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안 당국이 악성 공매도를 수사할 방침을 표명하면서 외국인 기관투자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있어 상하이 주식 거래에 신중을 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차기태 기자 folium@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화장품업계 4개월간 논스톱 할인

코리아그랜드세일·서울썸머세일로 유커 유혹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 발길이 끊겨 고심에 빠진 화장품 업계가 대규모 할인 행사에 발 벗고 나섰다.

7월 서울썸머세일을 시작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여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프로모션에 잇따라 참여를 결정, 4개월간 논스톱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 화장품 업체들은 8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리는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여한다.

코리아그래드세일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할인 행사로 한국방문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다. 세일 기간 명동 등 주요 상권에서 식음료·패션·화장품·숙박·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행사를 연다.

지난해 12월에 진행됐던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 기간은 올해 8월로 앞당겨졌다. 이달 1, 2차 두 차례에 걸쳐 참여업체 모집에 들어갔다. 지난 24일까지 마감한 1차 모집에는 90여개 업체가 신청서를 냈다. 135개 업체가 참여했던 지난해에 비하면 고무적인 성과라는 게 한국방문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2차 모집에는 좀 더 많은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숍 계열사 에뛰드하우스·이니스프리를 비롯해 멀티숍 아리따움, LG생활건강의 비욘드·더페이스샵은 코리아그랜드세일 참가를 결정하고 할인율·쿠폰 발행 등 세부 혜택을 논의 중이다. 네이처리퍼블릭·잇츠스킨 등 화장품 브랜드숍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 업체 중 일부는 이달부터 서울시가 개최하는 서울썸머세일에도 참여 중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진행하려 했던 썸머세일을 8월 20일까지 연장했다. 더페이스샵은 구매 금액 대 별로 5~10% 할인하며 잇츠스킨은 8월 15일부터 1+1 행사를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방문이 줄면서 내국인 대상 프로모션을 진행해 하락폭을 상쇄해왔다"며 "관광객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행사를 기획해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다시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0215@

삼성 스마트폰·TV·반도체 중국발 위기

中 기업 공격적 투자에 당국도 자체 IT산업 적극 지원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과 TV사업이 중국 기업의 추격으로 부진의 늪에 빠졌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든든한 캐시카우(현금창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도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쫓기는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다.

2013년 4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를 달렸던 삼성전자가 불과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5위로 주저앉았다. 중국 IT산업의 폭발적 성장세가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시리즈의 발목을 잡은 업체는 바로 샤오미였다. 샤오미 돌풍으로 중국 휴대전화시장이 중저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삼성은 시장을 내놔야 했다.

때문에 삼성전자 IM 사업부는 한때 분기별 영업이익 6조원을 넘어섰지만 작년 하반기 1조원대로 급감한 이후 정체 상태다. 오히려 중국 업체와 애플에 프리미엄폰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모양새다.

26일 신화통신은 IHS 자료를 인용해 중국 브랜드인 샤오미가 올해 2분기 점유율 18%를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2위와 4위도 중국 업체인 화웨이와 비보로 점유율은 각각 16%와 10%다. 미국 업체 애플은 12%의 점유율로 3위를, 한국의 삼성전자는 9%로 순위는 4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노근창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애플의 건재함과 중국 스마트폰의 약진으로 출하량 증가가 쉽지 않아 모바일 부문의 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이건희 회장이 이룩해 놓은 반도체산업이 유일하게 선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중국 업체들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2017년까지 반도체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4일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 "정보화 시대의 진전에 따라 응용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서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최대 반도체 설계회사가 전 세계 5위 종합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인수를 제의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 인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이 메모리반도체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경쟁력 유지와 함께 전문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와 업체들의 반도체산업 진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중국 칭화유니그룹이 미국 마이크론 뿐만 아니라 협력파트너인 대만 PC용 DRAM 생산업체 이노테라와 난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스플레이산업이 중국업체들의 공격적 투자로 시장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중국 반도체 업체가 새로운 방식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경우 안정적인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는 DRAM산업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을 본격화 하면서 세계 LCD TV 패널 가격이 하락해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양성운 기자 ysw@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사상 최고

이달 말, 1만건 넘을 듯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7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호황과 실수요자들의 구매전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6일 현재 9412건이다. 이는 지난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 거래량이던 지난 2009년 동월(9005건)을 넘어선 수치다.

이달 하루 평균 거래량은 362건으로 6월(375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현재 추이로 볼 때 7월 말까지 총 예상 거래량이 1만1000여건에 달해 6월(1만1250건) 거래량에 육박할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 들어 금리 인하와 규제완화, 전세난 등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이 구매수요로 전환하며 6개월 연속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비수기인 7월에도 꾸준히 계약이 이뤄졌다. /김형석 기자

메르스도 비껴간 LG생활건강 '실적 호조'

2분기 영업익·전망치·주가 14%↑… 3분기도 긍정적

| 마켓인사이트 |

LG생활건강이 화장품 부문에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2분기 실적에서 쾌거를 이뤘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영향에 지지부진하던 LG생활건강 주가도 이날만큼은 대폭 상승하며 호조를 보였다.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LG생활건강은 전일 대비 14.15%(10만6000원) 오른 85만5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LG생활건강은 6월 이후 줄곧 70만원 대에서 등락을 거듭해왔다.

LG생활건강의 어닝서프라이즈 소식에 다른 화장품 주가도 메르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기대에 동반 상승했다. 이날 화장품 대장주 아모레퍼시픽은 전일보다 1만500원(2.66%) 오른 40만4500원, 아모레G는 6000원(3.16%)오른 19만6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4일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8.3% 증가한 168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도 1조3110억원으로 14.8% 올라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LG생활건강은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 사업으로 구성된 사업 부문에서 모두 건실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영업이익 중 화장품은 전년 동기 대비 50.9% 증가한 951억원, 생활용품은 27.4% 증가한 387억원, 음료는 22% 증가한 342억원을 달성했다.

나은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LG생활건강의 2분기 영업이익은 당사 예상치를 14%나 상회하는 결과"라며 "전 부문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여 영업이익률은 12.8%로 전년 동기 대비 2.25p나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원은 "생활용품 부문은 해외 사업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8%나 급증한 서프라이즈로, 평균판매가격(ASP) 정상화와 기저 효과에 '헤어 케어' 부문이 호조였다"며 "음료부문도 수익성 높은 탄산음료 매출 호조와 자동화 설비 투자 및 아웃소싱 내재화에 힘입어 수익성이 기대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LG생활건강의 해외 화장품 사업은 두드러진 실적을 냈다.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인 '후', '숨', '빌리프'가 고성장하며 프레스티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8% 늘었고 면세점 매출도 142% 증가했다.

나 연구원은 "LG생활건강의 2분기 해외 화장품 영업이익률은 19.1%로 전년 동기 13.8%에서 대폭 상승했고,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102억 증가했다"며 "특히 중국 화장품 매출이 전년 대비 98% 성장했는데 '후' 브랜드가 314%, '더페이스샵'이 50%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LG생활건강은 국내에서도 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141%, 방판 채널이 37% 성장해 건재함을 과시했다.

3분기 실적 역시 긍정적이다.

박종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3분기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6% 이상 증가하는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며 "화장품 부문은 7월 면세점 채널 부진이 예상되지만, 메르스 조기 종식으로 다음달 이후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손효주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은 3분기에 더 클 것"이라면서도 "메르스 영향은 시장에 이미 반영 된데다 음료 및 생활용품 사업이 호전돼 시장 우려보다는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한국투자證 'JP모간중소형 주식' 추천

한국투자증권이 유럽 증시 회복에 수혜가 기대되는 'JP모간유럽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연초 이후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해외 주식형 펀드는 유럽펀드로, 올해 들어서만 1조1000억원 이상이 유입됐다. 특히 하반기 이후 부터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이익 증가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이 추천한 'JP모간유럽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은 피투자펀드(JPMorgan Funds-Europe Small Cap Fund)에 대부분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다.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과 성장 모멘텀을 동시에 지닌 종목에 투자해 장기적으로 시장대비 초과 성과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평균 시가총액 2조원, 150개 이상 종목에 분산투자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피투자펀드 규모는 현재 4억800만 달러(약 5321억원)로 높은 수탁고를 보이고 있다. 수익률도 연초 이후 23.69%로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수익률 7.80% 대비 월등하다.

문성필 상품전략본부장은 "유럽 기업의 이익 증가는 중소형주가 주도하고 있어 유럽 중소형주의 투자 매력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소형주가 대형주에 비해 변동성이 다소 높지만 더 높은 위험 대비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품가입은 한국투자증권 전 영업점 및 온라인에서 가능하다./김보배 기자

신한금융투자, '명품 프로 주식랩' 눈길

우수PB가 직접 관리

증권업계 최초로 고객수익률을 직원 평과와 성과급에 연동한 신한금융투자의 '신한명품 프로 주식랩'이 재테크족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신한명품 프로 주식랩'은 본사에서 관리하는 랩 상품과 달리 펀드매니저·재무설계사 등 자격증을 가진 영업점PB들이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운용하기 때문에 신속한 시장 대응은 물론 맞춤형 수익률 관리가 가능하다. 운용은 전담 PB가 하지만 손실과 리스크는 본사와 영업점이 '듀얼'로 철저히 관리한다. 랩 수수료 외 매매 거래비용이 면제여서 우수 종목 발굴에 유리한 것도 장점이다.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한명품 프로 주식랩'은 지난 13일 기준 10% 이상 수익률을 보이는 계좌가 절반에 이르고, 3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인 계좌도 10%를 넘어섰다.

신한명품 프로 주식랩은 선취, 후취, 성과보수형 등 네가지 형태의 수수료 체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금액은 5000만원이다. 타 증권사에서 운용중인 주식을 그대로 옮겨오거나 현물 입고도 가능하며 신한금융투자 전국 지점 및 PWM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재신 랩운용부장은 "올해 초 최소 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낮춘 후 고객 문의와 상품 가입이 늘고 있다"며 "영업점PB와 고객이 직접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운용방식으로 고객들의 관심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증권 마감시황

코스닥 3%대 급락 '연중최저'

美 금리인상 경계감 때문

코스피가 2분기 실적 우려와 환율 급등 등에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며 큰 폭으로 떨어졌다. 코스닥도 3%나 급락했다.

이날 지수가 하락한 것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70원을 돌파하면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세를 보였고, 대형주들의 실적 악화 전망이 더해지며 낙폭이 확대됐다.

27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7.15포인트(0.35%) 내린 2038.81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은 400억원 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43억원, 111억원을 순매도해 반등을 저지했다. 외국인은 7거래일째 '팔자'를 거듭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이 하락한 가운데 운수장비, 은행, 기계 등이 올랐다. 증권, 음식료업 등은 2%대 하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혼조세였다. 원·달러 환율 상승효과에 힘입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각각 4.32%, 6.20% 올랐고 아모레퍼시픽 역시 실적 기대감에 2.66% 상승했다. 반면 한국전력, SK하이닉스, NAVER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은 외인 매도공세에 3%대나 급락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5.22포인트(3.35%) 내린 751.04로 장을 마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84억원, 537억원 어치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1459억원 순매수했다.



한국거래소 부산본사 건물 앞 황소 상. /연합뉴스

업종별로는 오락문화(0.11%)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떨어졌다. 제약이 5.58%로 낙폭이 컸고 기계장비, 의료정밀기기, 음식료담배 등도 3%대 하락했다.

시총 상위종목 중에서는 로엔,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포스코ICT 등이 강보합권을 형성했다. 반면 셀트리온(-3.30%), 다음카카오(-1.17%) 등이 하락했고 동서, 메디톡스, 이오테크닉스 등도 5%대 하락률을 보였다. /김보배 기자

NH투자證,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로 일석삼조 효과

NH투자증권이 노후대비·수익성·세제혜택 등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로 투자자를 공략하고 있다.

'100세시대연금저축계좌'는 다양한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계좌와 원금보장과 예금자 보호에 주력한 연금저축신탁계좌로 구성돼 있다.

우선 '100세시대 연금저축펀드계좌'는 국내외 다양한 펀드상품을 Line-up하고 있으며 매월 투자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시장상황과 트랜드를 반영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고객 투자성향별 모델 포트폴리오, 해외펀드 Only 포트폴리오를 통해 저금리 환경에서 고객의 연금자산 운용 수익을 극대화했다. 지난달 15일부터는 업계 최저인 3%의 금리로 담보대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증권사 중 유일하게 지난 2005년 연금저축신탁업을 인가받아 연금저축신탁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원금보장 또는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기대수명이 81.4세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개인연금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며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로 고객들은 연금저축펀드계좌의 높은 수익률로 자산을 늘리고 연금수령이 가능한 고령이 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연금저축신탁계좌로 이전해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여행·공연·전시… 휴가철 카드혜택 즐기자

카드사, 워터파크·차량정비 할인 등 다채

카드사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방위적인 문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계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고객 유입까지 끌어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공연과 전시부터 해외여행까지 다방면에서 할인과 문화 혜택을 담은 휴가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 해외여행부터 차량정비, 공연 이벤트까지 마케팅 실시

NH농협카드는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워터파크 입장권과 해외여행 할인, 온라인 쇼핑몰 할인 이벤트 등을 실시한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은 NH농협카드 채움스케치에서 해외여행 3~5%, 해외호텔 최대 15%, 해외항공권 최대 13%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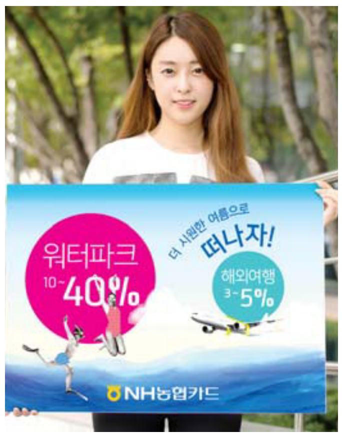
대명 오션월드, 설악 워터피아, 웅진 플레이도시 등 전국 20여개 워터파크에서 NH농협카드로 현장 결제 시 최대 40% 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휴가를 떠나기 전 차량정비를 받는 고객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스피드메이트에서 할인쿠폰을 제시하면 엔진오일 2만원 할인, 에어컨 가스 완충 1만원 할인과 오존살균 무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카드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전국 8대 워터파크 S라인 할인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 평창의 블루캐니언 ▲홍천 오션월드 ▲경기도 이천 테르메덴 ▲부천 웅진플레이도시 ▲충남 예산의 리솜스파캐슬 ▲경북 경주의 블루원 워터파크 ▲경남 김해의 롯데워터파크 ▲전남 여수의 디오션 워터파크 등 8곳에서 펼쳐진다.



/농협카드 제공

할인율은 20%에서 최대 50%에 이르며 현장 결제시 이용가능하다.

경기 침체 회복에 일조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공연도 눈에 띈다.

신한카드는 문화 향유 확산을 위해 '신한카드와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GREAT Wednesday' 첫 번째 공연을 개최한다.

공연은 오는 29일 오후 6시 30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1층 야외잔디에서 '대한민국 락의 역사'를 주제로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는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야외계단에서 인디밴드의 2차 문화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내경기 회복 일조-기존 고객 로열티 강화 '조점'

현대카드는 9월 3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18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2015'를 진행하고 있다.

컬처프로젝트는 음악과 미술, 무용, 애니메이션, 건축 등 다양한 장르의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문화 컨텐츠를 소개하는 현대카드의 문화 마케팅 브랜드다.

삼성카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삼성카드 셀렉트'의 30번째 공연으로 뮤지컬'명성황후'를 선정했다.

고객은 공연 예매시 동반자 티켓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관람객 전원에게 미니 프로그램북을 증정해 공연 이해를 돕는다.

뮤지컬 명성황후는 아시아 최초로 뮤지컬 본고장인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 진출한 창작 작품이다.

공연은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광복절인 15일 오후 3시/7시, 총 3회차로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진행된다. 예매는 오는 7월 31일부터 삼성카드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1인당 2매까지 (총 4매) 구매 가능하다.

이밖에 우리카드는 체크카드 신규·추가발급 후 익월 10일까지 10만원이상 이용한 고객을 추첨해 신세계 상품권, 로봇청소기 등 경품도 제공한다.

또 8월 14일까지 YES24에서 중고 또는 외국 도서 구입시 30% 할인혜택을 주며 내달 말까지 학원비 결제시 최고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증정한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KB국민은행, 외국인고객 초청 '서울알기' 행사 KB국민은행은 지난 26일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여름에 떠나는 두근두근 서울 알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KB국민은행 제공

NH농협금융, 상반기 순익 4370억… 전년比 174%↑

실질적 수익성 증가

NH농협금융지주는 올해 상반기 43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명칭사용료를 포함한 것으로 명칭사용료 부담전 당기순익은 5675억원이다.

명칭사용료는 농협법에 의거, 지주회사를 제외한 자회사가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에 매 분기초에 납부하는 분담금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일회성 요인인 우투증권 패키지 인수에 따른 염가매수차익(3655억원)을 감안하면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74%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분기대비 117.6% 늘어난 2994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력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008억원(명칭사용료 부담 후)으로 전년동기대비 150%, 전분기대비 134.2% 증가했다.

이자이익은 2조92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 확대됐고 순이자마진(NIM)은 2.00%으로 전년동기대비 0.03%p 떨어졌다.

같은기간 농협생명은 전년동기대비 6.9% 늘어난 764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했다. 농협손해는 10.2% 감소한 17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NH투자증권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617억원이다.

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전년동기는 우투증권 패키지 인수에 따른 염가매수차익이 일회성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올해는 농협금융의 실질적인 수익성이 증가했다"며 "하반기에는 수익구조 개선에 매진해 경영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2일 서대문 본관에서 계열사 CEO, 임직원과 '2015년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를 열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김 회장은 이날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으로 ▲글로벌, 핀테크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한 사업영역 확대 ▲운영체제 개선을 통한 조직 효율화 ▲시너지 수익기반 확대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 ▲효율적 기업문화 확산을 선정했다. /백아란 기자

보험사, 휴가철 무상 '차량점검 서비스'

교통사고 예방 총력

보험사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차량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현대해상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부산 해운대 및 광안리,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인근 '하이프라자'에서 '하계 차량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고객뿐만 아니라 방문자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방문객에게는 현대해상 서비스 지정점인 '하이카프라자' 1급 정비기사들이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등 총 30가지 항목을 무상으로 점검하고 워셔액, 윈도우 브러쉬, 전구 등 소모품도 무상으로 교환해 준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하이카프라자' 부산 해운대점과 광안점, 강릉 교동점과 포남점을 방문하면 된다. 해당 '하이카프라자'의 위치는 현대해상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지점찾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동부화재는 휴가철 사고 예방을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프로미카월드' 401개점에서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

오토케어서비스 특약 가입고객은 브레이크오일, 타이어 공기압 등 25개 항목 점검과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약 미가입 고객은 12가지 점검과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하이카프라자' 정비사들이 방문객 차량을 살펴보는 모습. /현대해상 제공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동부화재 고객뿐만 아니라 타사 고객에게도 차량 무상점검서비스가 제공된다.

행담도, 서산, 대전 휴게소 '프로미카월드'에서 '7월31일~8월1일', '8월7일~8일'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리츠화재도 휴가철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레디카 및 Master' 가맹점 383개점에서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이면 누구나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엔진오일, 미션오일 등 각종 오일점검과 여름철 특히 신경 써야 할 브레이크, 타이어 등 20여가지 항목들에 대해 점검서비스가 제공된다.

더불어 메리츠화재는 이 기간 차량정비를 받는 고객들에 한해서 정비공임료를 20% 할인해 준다.

삼성화재는 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해운대, 대천, 경포대 등 총 3개 '삼성화재애니카랜드'에서 '하계 휴양지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김보배 기자 bobae@

'뉴스테이' 내달 첫 입주자 모집… 사업 탄력

22개 업체, 동탄2·충북혁신도시 참여의향서 제출
LH, 장기 미매각 일반상업지역 뉴스테이 추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안정 사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다음달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 특히 이달 초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반년 만에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등 앞으로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도화지구 내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도화'는 다음달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 중 처음이다.

이 단지는 인천도시공사가 조성 중이 도화도시개발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오는 2017년까지 총 1960가구(전용면적 59~89㎡ 규모)를 보증부월세형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보증금은 전용면적별로 5000만~9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40만~60만원 선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4월 13일 도화구역 5BL, 6BL에 뉴스테이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이후 이달부터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본격 착공은 오는 9월 예정이다.

뉴스테이사업이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올초 내놓은 사업이다. 중산층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 희망자에겐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사업이다.

타 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도 순항 중이다. 주택기금·하나은행·삼성생명·반도건설이 출자한 서울 신당동 사업(729가구), 주택기금·주택임대관리회사 HTH의 서울 대림동 사업(293가구) 등이 현재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뉴스테이 사업도 활발하다. LH는 지난달 10일 화성동탄2신도시 등 3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뉴스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화성 동탄2신도시(A-14블록)에는 대우건설이 기업형 임대 '푸르지오 메종' 1135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연립주택 부지(A2-14블록)에는 대림산업이 360가구를, 김포 한강신도시(Ab-04블록)에는 금성백조주택이 1770가구를 공급한다.

이어 LH가 진행한 화성동탄2신도시 A95블록과 충북혁신도시 B4블록 등 두 곳도 22개 업체가 참여의향을 내비쳤다.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시공업체에는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호반건설,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등이다. AMC(자산관리회사)에는 코람코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등이, 시행업체는 신영, 보성산업 등이, 주택임대관리업체는 해피투게더하우스가 각각 포함됐다. 국토부는 당초 계획대로 9월 초 두 지역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LH는 장기간 안팔린 상업용지를 뉴스테이로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LH는 최근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3-1번지 광명소하지구내 장기 미매각 일반상업지역을 리츠로 개발할 민간사업자로 KT AMC·한신공영·부국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부지는 지난 2010년 준공된 광명소하지구내 상업용지로, 입지는 좋은 편이지만 면적이 6081㎡로 커 6년 7개월째 미매각된 채로 남아있었다.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개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해당 용지를 매입한 후 오피스텔을 건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청천2 재개발 사업정체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뉴스테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는 총 3197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올해 민간제안 사업 5529가구와 LH 부지에 공모(3265가구) 등 올해 안에 뉴스테이 사업을 통해 1만가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초 국회 법안 소위에서 뉴스테이법이 통과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각종 세제 혜택과 장기적인 임대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마련이 보장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10년來 세계 15대 건설사 진입"

박영식 대우건설 대표이사

대우건설 '비전 2025' 선포
에너지 인프라 강화키로

대우건설은 지난 24일 '대우건설 비전 2025' 선포식을 개최하고 2025년까지 매출 25조원, 연간 영업이익 2조원의 세계 15대 건설사 진입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대우건설이 발표한 비전은 '인류와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기업(For the People & Better Tomorrow)'이다.

이를 위해 대우건설은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체계화시키기로 했다. 이어 기존의 단순 시공에서 '기획과 제안형' 사업을 확대해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세계적인 개발·시공·운영 회사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해외 거점 시장에서 현지 합작회사 설립 등 지역 내 경쟁력을 갖춘 자회사를 육성시킬 예정이다.

이어 세계적인 기술경쟁력과 시공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 사업을 선정해 사업추진과 핵심기술을 더욱 혁신하고 침매터널, 초장대교량, 초고층·친환경 빌딩, 스마트(SMART)원전 등 기획제안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조달 강화를 위해서는 국책은행, 대규모 펀드 등과 제휴 또는 협업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신성장 동력사업으로는 기존 민자발전사업(IPP)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투자·매니지먼트를 포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운영(O&M)사업, 융복합 기술 사업 등을 꼽았다.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이번 비전 선포를 통해 대우건설이 지속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호반건설 "소외층 아이들 위해 '기부책가방' 만들어요" 호반건설 사내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는 지난 25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1동 주민센터를 찾아 국내외 빈민 아동에게 보내는 '기부 책가방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호반건설 제공

호반건설

수도권 도시정비 첫 수주
광명10R 재개발 시공 선정

호반건설이 수도권에서 첫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25일 경기도 광명시 뉴타운 광명10R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373-3번지 일대에 연면적 4만7898㎡, 지하 3층~지상 29층의 아파트 1044가구(임대 176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2016년 사업시행인가 후 2017년 11월 착공 예정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3~4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성실한 시공을 통해 조합원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부문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호반건설은 앞서 지난 4월에는 광주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박선옥 기자

아현·북아현 집값 들썩… 고가 철거효과 톡톡

노후 주택가 재개발 탄력
3.3㎡ 당 2000만원대 돌파



지난해 3월 아현고가가 사라진 신촌대로 일대 모습.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노후 주택가로 꼽혔던 마포구 아현뉴타운,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이 신규 아파트촌으로 거듭나고 있다. 주택경기 회복과 함께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어서다. 아현고가의 철거로 주거기능이 향상된 것도 한 몫 했다.

27일 아현동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 4월 입주한 공덕자이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최고 6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3.3㎡당 2030만원으로 2년 전 분양가 6억3000만~6억9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매매가 역시 분양가보다 최고 9000만원까지 올라 7억8000만원을 웃돌고 있다.

기존 아파트 매매가에 힘입어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경쟁률도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청약 접수를 실시한 북아현뉴타운의 'e편한세상 신촌'은 1순위에서 평균 10.68대 1로 마감돼 현재 98%의 계약률을 기록 중이다.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아현·북아현동 일대는 광화문·시청·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역과의 뛰어난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 저평가됐던 지역"이라며 "재개발로 2만4000여 가구의 신흥 도심 주거타운으로 거듭나면서 지금은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 같은 도심 아파트값 강세 현상은 여가와 가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직장이 가까운 도심지역에 거주해야 출·퇴근길이 편해지고 여유시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지목되던 아현고가도로가 지난해 3월 철거된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고질적인 불법주차 차량이 즐비했던 고가 밑으로 8차선 대로가 뚫리고 버스전용차로가 개통하는 등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서 아파트는 물론, 인근 상권의 가치까지 상승하는 모습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직장과 가까운 직주근접형 아파트는 편의성이 좋은 것은 물론, 불황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다"며 "특히 아현·북아현뉴타운은 미니신도시급 규모에 교통여건도 좋아 투자자도 관심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

“韓부품사 해외진출 교두보는 마이라”

| 인터뷰 | 테리 스팰 마이라 테크놀로지 파크 상무이사

“한국의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은 아직도 내수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걸 발견했다. 전세계 시장이 급변하는 시기에 현대차에만 매달리지 말고 열린 가능성을 봐야 윈윈할 수 있다.”



테리 스팰 마이라 테크놀로지 파크 상무이사는 우리 부품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통할 기술력을 지녔고, 이를 떨칠 기회가 왔음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27일 마이라를 홍보하는 인티그라의 서울 내수동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영국정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해 민영화한 마이라는 70년의 역사를 지닌 자동차 테스트·기술연구 기업이다. 세계 자동차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유수의 글로벌 메이커들이 우리와 함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시험하고 있다.”

스팰 이사는 10년 조성 계획으로 3년째 추진 중인 마이라 테크놀로지 파크에 국내 부품사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번이 그의 62번째 방한이라고 한다.

영국 버밍험 인근에 자리한 테크놀로지 파크 부지는 총 18만5800㎡(5만2600평) 규모다. 현재 약 2만평이 조성됐고, 직원 600명 중 75%가 기술 인력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차의 대두로 변환기를 맞이했고, 그만큼 기회가 많이 열렸다. 현재 수요도 자국 업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기술력 있는 업체들을 파크에 불러 모아 가능성을 나누고 더 큰 수요를 창출하고자 한다. 마이라가 지닌 인프라를 활용해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

그는 한국의 A라는 업체가 현대차와 별개로 유럽시장에 진출할 경우를 예로 들었다.

고객사 미팅부터 각종 인증절차와 현지 법제도, 시험장비와 장소, 인력 등을 독자적으로 준비하려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마이라는 5년간 법인세 면제와 함께 우리가 지닌 모든 인프라를 지원한다. 진출을 결심하면 완성차 업체들과의 미팅을 주선해 리스크를 줄이도록 돕겠다. 파크 내에는 차종을 불문하고 온갖 종류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비와 주행장, 엔지니어링 센터가 구비됐다.”

현대차 의존도 높은 韓부품사들 독립적 행보로 경쟁력 강화 필요

영국 투자청 리포트에 따르면 2009~2014년 영국 자동차 산업은 24% 성장했다. 이 기간 독일과 프랑스는 20%, 이태리는 30% 이상 쇠퇴했다. 유럽연합(EU) 평균 11% 하락세다.

현재 영국에는 6조원 규모의 부품 공급 수요가 남아있고, 2018년이면 완성차 224만대를 생산할 전망이다.

마이라는 영국이 유로 대신 파운드를 쓰고, 생산하는 모델이 시황을 덜타는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라는 데서 원인을 찾았다.

영국의 차량 생산비가 비싸다는 인식은 기우라고 설명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 조사결과 미국의 생산지수를 기준(100)으로 봤을 때 멕시코 91, 중국 96, 한국 102, 영국 109, 일본 111, 독일 121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정도 차이라면 자국에서 생산해 수출국에 선박으로 이동시키는 것보다 파크에서 생산하는 게 경제적이다.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해 영국은 물론 직접 통하는 유럽시장 판매에 유리하다. 인건비 역시 상승률이 낮고 안정적이라 종합해봤을 때 총 비용은 줄이고 제품 경쟁력은 올릴 수 있다.”

이번 방한에서 스팰 이사는 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12개의 국내 탑티어(top-tier)사들을 만났다고 한다.

절반인 6개사는 영국 진출에 긍정적이고, 나머지 절반은 현대차 의존도가 높아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고착된 생태계를 지적하며 경쟁력 있는 부품사의 참여를 독려했다.

“다른 나라는 정부가 해외진출을 돕는데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여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부품사들 역시 현대차가 어려우면 같이 어려움을 겪지 않나. 영국은 수요가 넘치는데, 일본 업체는 이미 토요타와 닛산, 혼다가 파크에 들어와 있다. 독립해서 기술력을 키우고 돌아가는 게 결국 윈윈하는 길이다” 그는 처음부터 들어와 생산공장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다. 처음엔 1~2명만 보내 시장성을 직접 판단해 투자를 점차 늘려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든 상존한다. 중요한 것은 의존 일변도에서 탈피해 유럽시장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기아차, 신형 K5 1호차 주인공에 주유상품권 선물

2명 선정 초청 이벤트



서울 압구정동 기아자동차 사옥에서 신형 K5 1호차 주인공으로 각각 선정된 김혜선씨(왼쪽), 방상철씨(오른쪽)가 김창식 기아차 국내영업본부장(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서울 압구정동 사옥에서 신형 K5 1호차 주인공을 초청해 차량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창식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을 비롯한 기아자동차 임직원이 참석했다.

기아차는 ‘듀얼 디자인’을 운영하는 신형 K5의 특성을 살려 1호차 주인공을 각각 선정했다고 전했다.

모던하고 세련된 MX모델은 스포츠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는 방상철(36)씨가,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SX모델은 세무사 김혜선(25)씨가 각각 신형 K5의 1호차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방씨가 구입한 모델은 선루프, HID 헤드램프 등을 갖춘 디젤 1.7 프레스티지 MX 모델이다.

김씨가 구입한 모델은 UVO 2.0 내비게이션 등을 갖춘 2.0 가솔린 SX 모델이다.

기아차는 신형 K5 1호차 주인공으로 선정된 방씨와 김씨에게 각각 주유상품권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정필 기자

기아차, 결식아동 영양지킴이 나서

‘사랑의 영양바구니’ 제작 비타민·오메가3 등 제공



27일 열린 사랑의 영양바구니 전달 행사에서 행사 참가자들이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기아자동차는 27일 서울 서초구청 강당에서 저소득 가정의 결식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영양바구니’ 전달 행사를 가졌다.

사랑의 영양바구니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 가정 자녀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기아차가 서초구청과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청소년기 성장에 필요한 종합비타민, 오메가3, 견과류 등을 바구니에 담아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방학동안 해당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아차 임직원 봉사단 50여명을 비롯해 지역복지관과 서초구청 직원 등 총 80여명이 참석해 직접 영양바구니를 제작했다.

자원 봉사단이 직접 쓴 희망엽서도 바구니에 담아 전달했다.

이날 제작된 530여개의 영양바구니는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에 전달됐다.

향후 저소득 가정의 결식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기아차 측은 “기아차 사업장이 위치한 서초구 내의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기아차는 향후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서초구청 측은 “서초구는 향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의 기업들과 다양한 맞춤형 나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yonggi@r

BMW미래재단, 내달 8일까지 희망나눔학교 진행



희망나눔학교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교육을 듣고 있다. /BMW 제공

BMW코리아 미래재단(BMW 미래재단)은 8월 7일까지 저소득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제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굿네이버스와 2015년 여름 희망나눔학교를 진행한다.

27일 사측에 따르면 희망나눔학교는 방학 동안 저소득가정 어린이 지원을 위해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BMW 미래재단이 후원하는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인 희망나눔학교는 올해로 4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여름 희망나눔학교 후원까지 시작했다.

2012년 첫 후원 이래 올해 1월 겨울 희망나눔학교까지 1140개교에서 총 2만3514명의 어린이가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여름 희망나눔학교는 전국 200여개 학교, 4000여명의 저소득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와 심리정서 지원, 식사 제공 등 인지, 정서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정용기 기자



삼성모니터 SE370, 휴대폰 무선충전 가능

자기유도방식 충전패드 내장

삼성전자는 27일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24인치와 27인치 모니터 SE37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SE370은 자기유도방식 무선충전 송신패드가 모니터 스탠드 부분에 내장돼 있어 사무공간을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고 PC 작업을 하다 휴대폰을 모니터 스탠드에 올려놓기만 해도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세계무선전력협회(WPC)의 자기유도방식 무선충전 표준인 '치'(Qi) 규격을 적용한 삼성전자 갤럭시S6·갤럭시S6 엣지 등 기기는 바로 호환되며, 모니터가 대기 모드인 상태에서도 충전 된다.

삼성전자는 "커피숍과 공항 등 공공장소에 무선 충전 인프라가 확산됨에 따라 무선 충전 제품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무선 충전이 가능한 모니터 SE370도 가정·사무공간·PC방 등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블루 베젤과 화이트 컬러의 SE370은 178° 광시야각 패널을 적용했고, 눈의 피로를 줄이는 아이 세이버 모드와 깜빡임을 최소화한 '플리커 프리' 기술을 적용했다.

이 밖에도 윈도우10 호환성을 인증 받은 SE370은 AMD의 프리싱크 기술로 고화질 콘텐츠의 화면 깨짐 문제를 해소해 게임을 할 때 끊김 없이 즐길 수 있다.

김석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전무는 "편의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스마트한 소비자를 위해 무선충전 모니터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편리한 사용환경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모니터를 지속해서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임은정 기자 eunj71@

20만원대 스마트 폴더폰 나왔다

세번째 '중저가폰' LG젠틀
카톡 탑재 등 중장년층 겨냥



LG전자 모델이 스마트 폴더폰 'LG젠틀'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가 29일 20만원대 스마트 폴더폰 'LG 젠틀'을 LG유플러스를 통해 출시한다.

LG젠틀은 '와인 스마트'와 '아이스크림 스마트'에 이은 LG전자의 세 번째 폴더형 스마트폰이다. 스마트 폴더폰은 물리버튼이 적용된 폴더폰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중장년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LG 젠틀'은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와 부드러운 라운딩 디자인을 적용, 사용자가 편안한 그립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 제품은 사용자가 문자 등을 쉽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넓은 물리 키패드를 적용했다. 주소록, 문자, 카메라 등의 전용 버튼도 별도로 있어 각 기능을 간편히 실행할 수 있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해두고 사용할 수 있는 'Q버튼'을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다. 사용자는 물리 버튼을 누르는 방법 이외에도 액정화면의 아이콘을 직접 터치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제품은 가로 3줄, 세로 3줄의 시원한 화면 인터페이스와 휴대폰을 쉽고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간편설정' 등 LG 스마트 폴더폰만의 직관적인 UX도 그대로 이어받았다.

'LG 젠틀'은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롤리팝을 지원하고 가격은 20만원대 초반이다.

조성하 LG전자 MC한국영업FD 부사장은 "작년 말부터 선보인 와인 스마트, 아이스크림 스마트 등 고객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을 지속 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http;//www.sokorea.or.kr/2015la'

스페셜올림픽 영상, 여기서 보세요

엔씨소프트문화재단
한국홈페이지 개설



지난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15 LA 스페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 개막식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막한 '2015 LA 스페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단의 주요 경기 장면을 볼 수 있게 됐다.

한국 대표 선수단을 후원하고 있는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은 스페셜올림픽 한국 홈페이지(www.sokorea.or.kr/2015la)에 우리 선수단의 개·폐막식, 주요 경기, 메달 수상 장면 등을 담은 '2015 LA 현지 대회영상·사진' 코너를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기관 추천을 통해 선발된 형제자매와 부모 등 선수단 가족 10명을 LA 현지로 초청해 가족 유대 강화를 위한 가족특별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LA 스페셜올림픽 한국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 환경 모두에 최적화돼 있다.

LA 현지 경기 영상과 사진 이외에 국가대표 선수 개인들의 성장과 훈련 과정을 담은 국가대표 선수 이야기, 스페셜올림픽의 기원과 비전·미션을 설명하는 스페셜올림픽 소개 그리고 이번 LA 대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선수단에 격려 응원 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윤송이 엔씨소프트문화재단 이사장은 "165개국이 참가한 개막식에서 우리 선수단은 아주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서 "이번 스페셜올림픽을 통해 선수들이 더 많은 용기를 얻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보다 좋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여동생인 고(故)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여사가 1968년 창설했다. 165개국에서 6500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LA 스페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에 우리나라는 육상, 수영 등 12개 종목에 92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대회는 오는 8월 2일까지 열린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모델이 올레드 TV(왼쪽부터 55형 곡면 올레드 TV(55EG9350), 55형 평면 울트라 올레드 TV(55EF9500), 55형 곡면 울트라 올레드 TV(55EG9470))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올레드TV 골라보자" LG 라인업 확대

국내시장 5종 추가 10종 확보

LG전자가 올레드 TV 라인업을 두 배로 늘리고 올레드 TV 대중화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27일부터 국내 시장에 4개 시리즈 5종의 올레드 TV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이로써 LG전자는 한국 시장에서 총 8개 시리즈 10종의 올레드 TV 라인업을 확보하게 됐다.

LG전자는 새롭게 선보이는 올레드 TV 5종 가운데 4종을 울트라 올레드 TV로 구성했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울트라HD TV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 5월과 6월에 LG전자가 국내시장에서 판매한 올레드 TV 가운데 울트라 올레드 TV 판매 비중은 약 25%에 육박했다.

LG전자는 울트라 올레드에서는 처음으로 평면 디자인을 적용한 65/55형 울트라 올레드 TV(모델명: EF9500)도 출시하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새로 선보이는 LG 올레드 TV는 얇고 가벼운 기존의 올레드 TV에 부품과 회로의 부피를 줄여 아트 슬림 디자인을 구현했다. 특히 55형 울트라 올레드 TV는 제품 두께가 4.8㎜로 스마트폰 두께보다 얇다.

캐시백 혜택을 적용한 판매 가격은 65형 평면 울트라 올레드 TV(65EF9500) 890만원, 55형 평면 울트라 올레드 TV(55EF9500) 540만원, 55형 곡면 울트라 올레드 TV(55EG9470, 55EG9450) 540만원, 55형 곡면 올레드 TV(55EG9350)는 369만원이다.

올레드 TV는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기존 액정표시장치(LCD) TV와 달리 완벽한 블랙을 구현할 수 있고, 색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올레드 TV는 현존하는 TV 가운데 가장 자연에 가장 가까운 색을 구현한다는 평가받고 있다.

/조한진 기자 hjc@

대우인터내셔널
김영상 대표 체제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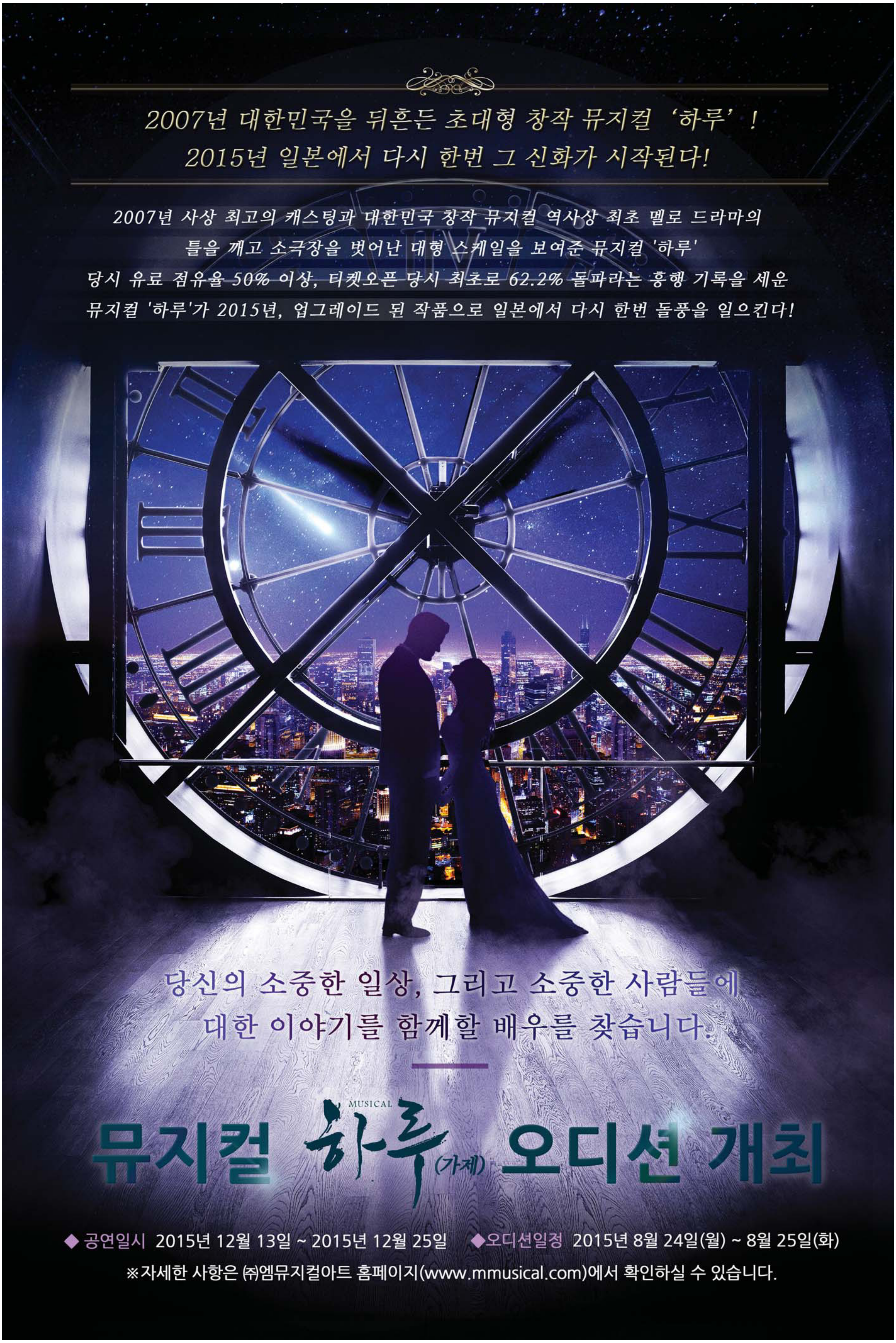


대우인터내셔널은 27일 김영상(사진)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대우인터는 이날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에 김 사장을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그는 1982년 대우에 입사해 토론토지사장과 모스크바지사장 등을 지내는 등 12년간 해외에서 근무했다.

철강1실장, 금속실장, 원료물자본부장, 철강본부장(부사장)을 거쳐 대우인터 사장으로 취임했다.


2007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초대형 창작 뮤지컬 '하루'!
2015년 일본에서 다시 한번 그 신화가 시작된다!
2007년 사상 최고의 캐스팅과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 역사상 최초 멜로 드라마의
틀을 깨고 소극장을 벗어난 대형 스케일을 보여준 뮤지컬 '하루'
당시 유료 점유율 50% 이상, 티켓오픈 당시 최초로 62.2% 돌파라는 흥행 기록을 세운
뮤지컬 '하루'가 2015년, 업그레이드 된 작품으로 일본에서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킨다!
당신의 소중한 일상,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할 배우를 찾습니다.
MUSICAL
뮤지컬 하루(가제) 오디션 개최
◆ 공연일시 2015년 12월 13일 ~ 2015년 12월 25일
◆오디션일정 2015년 8월 24일(월) ~ 8월 25일(화)
※자세한 사항은 ㈜엠뮤지컬아트 홈페이지(www.mmusical.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KT,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혁신나서

에릭슨과 '코어 네트워크' 기술개발 MOU 체결
클라우드 전용 인프라 'HDS' 설계·구축 예정

SK텔레콤이 5G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 시킬 수 있는 '코어 네트워크' 혁신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세계적인 통신 기술·서비스 기업 에릭슨과 5G 코어 네트워크 혁신·기술 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코어 네트워크는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필수로 거쳐야 하는 네트워크로서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고객 인증·데이터전송 등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간의 일들을 수행한다.

양사는 스웨덴 스톡홀름 에릭슨 본사에서 26일 체결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코어 네트워크 구조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양사는 가상화를 기반으로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서비스 별로 분류하고 지능화시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가상화 기술을 통해 물리적인 코어 네트워크의 서비스 기능별 분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지금은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IoT ▲인터넷뱅킹 ▲영상·음악 스트리밍 ▲SNS 등을 이용하지만 이 기술을 이용하면 각 서비스에 최적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각각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네트워크가 기능별로 분리되면 운용 효율성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5G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서비스들을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K텔레콤이 26일 스웨덴 스톡홀름 에릭슨 본사에서 코어 네트워크 혁신·기술 개발 MOU 체결식을 가졌다. 조성호 SK텔레콤 5G테크랩 랩장(오른쪽)과 멜리 투판 에릭슨제품라인 패킷 네트워크 수석이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양사는 연말까지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클라우드 전용 인프라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시스템(HDS)'의 설계·구축을 할 계획이다.

울프 에발손 에릭슨 최고기술경영자(CTO)는 "가상화 패킷 코어 기반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통신사업자들이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G 기술 진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SK텔레콤과 이러한 여정을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진성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은 "5G 시대에 쏟아질 미래형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코어 네트워크의 혁신과 가상화 기반의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필수"라며 "유·무선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기술 진화를 통해 5G 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공항서비스 이용방법 UCC 소개

아시아나항공
영상공모 우수작 선정



아시아나항공이 1회 공항서비스 영상공모전을 개최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그 UCC(User Created Contents)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사측은 내부 평가와 네티즌의 조회수를 종합한 결과 김포공항국제선서비스지점의 '아시아나항공 김포 국제선 이용 백서'가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포공항국제선서비스지점의 UCC는 김포공항 국제선 이용 시 승객이 아시아나의 모바일 체크인 서비스와 키오스크 서비스 등 자동 탑승수속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법과, 김포공항 국제선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담았다.

탑승수속 마감시간에 임박해 공항에 도착한 상황, 탑승 수속 대기 줄이 긴 상황 등 실제 손님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모바일 체크인 서비스와 키오스크 서비스 등을 이용해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손님의 시각에서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 내부 심사단과 네티즌의 호평을 받았다.

아시아나는 승객에게 빠르고 간편한 모바일 체크인 서비스, 키오스크 서비스뿐 아니라 각 공항 이용 안내, 명소, 자랑거리, 특성 등을 잘 알릴 수 있도록 국내외 공항서비스 지점을 대상으로 공항서비스 영상 공모전을 실시했다.

14개 지점이 참여해 총 17개 작품을 출품했다.

아시아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다.

남기형 아시아나 공항서비스담당 상무는 "끼와 재능, 열정이 넘치는 직원들 덕분에 출품된 작품의 질과 양이 기대 이상이었다. 앞으로도 승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방식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LGU+, 넥슨 모바일게임 '천룡팔부' 제휴

이용 고객에게 아이템 증정
무협 드라마 전편 무료제공

LG유플러스가 넥슨 모바일게임 '천룡팔부'와 콘텐츠 제휴를 하고 이용 고객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증정한다.

LG유플러스는 다음달 3일까지 비디오 서비스 'LTE비디오포털'에서 무협 드라마 '천룡팔부'와 모바일게임 홍보 영상을 감상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500명에게 게임 아이템 1만원권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타사 가입자도 회원가입 후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천룡팔부는 지난 6월 말 넥슨을 통해 국내에 게임으로 출시됐다. 이번 제휴로 LTE비디오포털 앱을 설치한 모바일게임 천룡팔부 고객들은 무협 드라마 전편을 무료로 볼 수 있다. 게임 고객들은 LTE비디오포털의 팝업플레이 기능을 통해 게임을 하면서 동시에 무협 드라마를 볼 수 있다.



27일 서울 용산의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사내 홍보 모델들이 LTE비디오포털과 넥슨 '천룡팔부'의 제휴와 함께 열리는 경품 증정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아울러 천룡팔부 모바일게임 공식카페(http://cafe.naver.com/nexon1008)에서는 무협 드라마 퀴즈 정답자 가운데 500명에게 LTE비디오포털 콘텐츠 이용권(5000원권)도 준다. 자세한 내용은 LTE비디오포털 앱과 모바일게임 천룡팔부 공식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진 LG유플러스 P1팀 팀장은 "LTE비디오포털은 게임을 즐기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영상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넥슨과 손을 맞잡았다"면서 "비디오와 게임의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새롭고 다양한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두산인프라, 상반기 영업익 2040억… 전년比 16.5%↓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2분기 매출 1조9795억원, 영업이익 1284억원, 당기순이익 95억원의 실적을 냈다고 27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3%, 영업이익은 11.7%, 당기순이익은 88.0% 각각 줄었다.

올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0%, 70.1% 늘고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상반기 두산인프라코어는 매출 3조8132억원, 영업이익 2040억원, 당기순손실 34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8%, 16.5%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810억원에서 적자 전환했다. /이정필 기자

한국지엠 노사, 임금 잠정합의안 도출

기본급 8만3000원 인상

한국지엠 노사는 27일 '2015년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국지엠은 이날 열린 21차 교섭에서 ▲기본급 8만3000원 인상 ▲격려금 650만원(타결 즉시 지급) ▲성과급 400만원(올해 말 지급) 등 임금 인상과 미래발전전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지엠은 올해 임금교섭을 원만하게 종결짓고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한 고민을 거쳐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

한국지엠은 미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안을 내 잠정합의에 이른 만큼 노조원들의 현명한 결정으로 협상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노사가 하반기 연이어 계획된 신차 생산·판매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단체교섭을 무분규로 마무리한 한국지엠은 2년 연속 평화적인 교섭 타결을 앞두고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4월23일 첫 상견례 이후 이번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내기까지 그 동안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매 차례 협상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전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

대기업 식자재유통 '잠식'… 中企 '퇴출' 위기

작년 '중기적합업종 지정' 신청에도 동반위 '묵묵부답'
대상베스트코, 사업조정신청 '최다'… 조정까지 1~2년

대기업들이 고성장이 예상되는 식자재 유통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식자재유통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요구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며 중소유통업체들이 갈수록 설자리를 잃고 있다.

국내 식자재유통시장은 2012년 기준 약 105조원으로 5년 평균 13.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고성장 사업이다. 대기업의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주로 영세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2001년 CJ프레시웨이(대표 강신호)를 시작으로 2010년 이후 대상베스트코·현대그린푸드·LG아워홈·삼성에버랜드 웰스토리·신세계푸드·동원홈푸드 등 대기업들이 속속 진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2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식자재유통업 관련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달라는 영세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은 27건에 달했다.

사업조정신청은 지역소상공인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중기청의 중재아래 지역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조율하는 제도이다. 대기업에 대한 사업일시정지·벌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대상베스트코(대표 이원석)에 접수된 사업조정신청은 14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중기청에 의해 정식으로 수락된 것은 9건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상베스트코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확장을 위해 '대상'이라는 상호를 숨기고 지역 식자재 유통 인수에 착수, 지역 중소업체들이 대상베스트코의 실체도 모르는 체 사업을 뺏겼다. 한 중소유통업자는 "30년을 해온 일자리를 잃었다. 당시에는 대기업이 우리 사업을 침범하는 지도 몰랐다"며 "그들은 대자본을 앞세워 우리의 자리를 너무도 쉽게 뺏어간다"고 말했다.



식자재유통사업에 진출한 대기업들.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에 중소상인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대상은 또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브랜드인 '청정원'에서 판매하는 PB(자체브랜드) 상품들을 타 마켓보다 자주 할인행사를 진행, 중소유통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 소매업자는 "이상하게 청정원만 할인행사를 많이 한다. 같은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청정원이 대상의 자회사니 밀어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2년 전국에 18개 지사를 갖고 있던 대상베스트코는 지난해 전국 지사를 32개까지 확장했다. 매출도 2012년 2727억원에서 4594억원으로 늘었다. 대상베스트코 측은 "사업 초창기에 급격한 사업확장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는 중소상인들과 상생하는 모델을 찾고 있으며 유통사업발전을 위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사업조정신청건도 잘 해결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베스트코는 인천중소유통상인들과 사업조정에 실패해 2012년 인천에서 사업을 철수한 경험이 있다. 중소유통업계가 지난해 12월 동반성장위원회를 상대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한 상태지만 동반위 측은 현재까지 '검토중'이라는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동반성장위원회가 아니라 일반성장위원회가 됐다"며 "동반위도 중기청도 수동적인 자세로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발 늦은 대응은 이미 죽은 중소 상인을 다시 살릴 수 없다.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하는 대기업과 다르게 중소상인은 하루 벌어 하루 산다" 덧붙였다.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제도도 중소유통업체에겐 무용지물이다. 중기청은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 '대중소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통해 일시정지제도도입·벌칙강화를 추가로 확보했다. 하지만 사업조정까지는 1~2년이나 걸려 중소업체들이 버티지 못하며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T커머스 'GS마이샵' 오늘 개국

중소기업 상품 우선 편성
전남창조혁신센터와 연계

GS홈쇼핑(대표 허태수)이 이달 28일 0시 T커머스 채널 'GS마이샵'(GS MY SHOP)을 공식 개국 한다.

GS홈쇼핑은 GS마이샵을 기존 홈쇼핑 방송을 재편집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T커머스 맞춤 VOD(Video on demand)로 100% 구성했다.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상품을 우선적으로 편성했으며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연계해 지역 특산물 판매도 진행한다.



GS마이샵에서는 1개 프로램 당 20분씩, 하루 총 72개 프로그램을 실시간 방송 매장에서 볼 수 있다. 또 지난 방송도 데이터 매장을 이용해 재시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GS마이샵은 T커머스 전용 스튜디오를 신설하고 관련 인원도 충원했다.

GS마이샵이 첫 방송될 채널은 스카이라이프 41번이며 이달 31일부터는 KT의 올레 TV38번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모바일 GS샵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결제는 리모콘·전화·모바일·올레TV 페이 간편결제 서비스 등으로 가능하다.

GS홈쇼핑 영업본부장 김호성 부사장은 "중소기업 상품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 T커머스의 모범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국 기념으로 상품권 및 경품 증정 등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성현 기자

롯데百, 역대 최대 해외명품대전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이 29일부터 서울 소공동 본점을 시작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해외명품대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2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1500억원의 물량을 30~80%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특히 기존 명품대전에서 인기가 높았던 가방·슈즈 등 잡화 상품군 비중을 60%까지 높였으며 기존 행사의 인기브랜드의 물량도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본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본점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5일간 진행하며 부산본점에서는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

잠실점은 잠실 롯데호텔에서 진행하며 기간은 내달 13일부터 16일까지다. 대구점은 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OneTV' 스카이라이프 채널 오픈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은 T커머스 채널인 '롯데OneTV'를 이달 28일 0시부터 스카이라이프 36번에 추가 오픈한다고 27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3월 31일 업계 최초로 KT올레TV 36번에 롯데OneTV를 개국, 상품 수와 편성시간 등의 제한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오픈형 T커머스 서비스를 선보였다. 현재까지 등록 상품 400여 개, 누적 시청자 수 700만명을 돌파했다.

송출 가구수가 약 420만 이상인 KT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에 이어 8월 말까지 추가 채널에 롯데OneTV를 오픈해 1000만 가구로 송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롯데OneTV는 중소기업 육성과 판로 개척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재고 부담이 적고 누구나 영상만 등록하면 입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TV 홈쇼핑에 입점이 어려운 중소기업 상품들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넥솔브, 핏플랍·LF 상대 판매금지 신청

영국 슈즈 브랜드 핏플랍을 국내 독점 수입·판매해왔던 넥솔브(대표 임정빈)가 LF(구 LG패션)와 핏플랍 영국 본사를 상대로 독점판매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넥솔브에 따르면 최근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던 중 핏플랍 영국 본사가 태도를 바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 LF와 계약을 체결했다.

넥솔브는 지난 2009년 정식 계약을 통해 핏플랍의 국내 판매를 전개해왔으며 계약서상 만료 기간은 2013년 12월31일까지다. 그러나 올해 5월5일 해지 통보를 받기 전까지도 문제 없이 제품을 판매해왔고 구두 상으로도 계약 연장 논의가 돼왔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라고 업체 측은 주장했다.

핏플랍이 LF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4월 28일이다. LF는 2016 봄·여름 시즌부터 제품을 판매하기로 했다.넥솔브는 핏플랍 영국 본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불공정거래행위)으로 신고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순하리 vs 이슬 '다른행보'

롯데주류 "과일소주 성장세"… 생산 확대 주력
하이트진로 "일시적 유행"… 추가 출시는 미정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과일 소주 시장을 두고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주류는 '순하리 처음처럼 유자'에 이어 추가 제품을 출시하고 '처음처럼' 생산라인까지 동원해 시장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자몽에이슬'을 출시하기는 했지만 제품 생산과 유통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주류는 최근 순하리 처음처럼 유자의 후속 제품으로 '순하리 처음처럼 복숭아'를 선보였다. 순하리 복숭아의 알코올 도수는 14도. 복숭아과즙이 들어간 소주 베이스 칵테일 리큐어 주류다. 일명 과일 소주로 불린다.

롯데주류는 순하리 복숭아로 과일 소주 열풍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생산라인도 늘렸다. 순하리 유자는 초기에 부산·경남 지역에만 출시를 계획했던 만큼 강릉 한 곳에서만 생산했다. 하지만 현재 군산과 경산 등 주력 제품인 '처음처럼'의 생산라인을 총동원하고 있을 정도로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는 순하리 제품만 월간 45만 상자(365ml*20병) 정도 가량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순하리 제품들은 처음처럼 라인에서 재고들을 확인하며 강릉·군산·경산 등에서 생산하고 있다"며 "과일 소주 시장에 대한 성장 한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주류 시장 전반에 불고 있는 저도화 트렌드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달 '자몽에이슬'을 출시하며 과일 소주 시장에 뛰어든 소주 업계 1위 하이트진로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자몽에이슬은 출시 열흘 만에 320만 병이 팔렸을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생산 확대와 추가 제품 출시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소주 시장 점유율 47%에 달하는 참이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자몽에이슬은 매화수, 복분자주 등이 생산되고 있는 청원공장의 기타제조주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자몽에이슬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참이슬 라인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월평균 1억3000만병이 팔리는 참이슬의 생산을 중단하기에는 위험성이 크다는 게 내부 판단이다. 이로 인해 자몽에이슬의 생산량은



사진 왼쪽부터 롯데주류 '순하리 처음처럼 유자', '순하리 처음처럼 복숭아', 하이트진로 '자몽에이슬'.

순하리의 절반 수준이다. 제품도 수도권 일부 지역과 유흥점 외에 가정용으로는 아직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자몽에이슬이 참이슬과 같은 주력 상품이 아닌 상황에서 당장의 매출이 좋다고 생산을 늘릴 생각은 없다"며 "추가 제품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관망세로 과일 소주 시장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류업계 관계자는 "롯데주류와 하이트진로는 과일 소주를 보는 주류 업계 시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롯데주류가 저도주의 과일소주 시장 확대를 전망한다면 하이트진로는 잠깐의 유행에 그칠 것이란 생각에 추가 투자를 꺼리는 것"이라며 "이들 기업의 판단이 향후 소주 시장 점유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예거마이스터, 아트 콜라보레이션 전시회 오픈 롯데주류(대표 이재혁)가 예거마이스터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전문 아티스트와 컬래버레이션한 이색 작품전시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롯데주류 제공

신원, 전환사채 발행… 유동성 위기 해소

신원(회장 박성수)이 최근 불거진 오너 문제로 인한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신원은 지난 24일 3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전환사채의 표면 이자율은 2%, 만기 이자율은 5.5%다. 만기일은 2019년 8월 6일이다.회사 측은 이번 전환사채 발행으로 유동성 위기를 모두 해소하고 향후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박성철 신원 회장은 사기 파산과 탈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 내수 살리기 동참

아모레퍼시픽그룹(대표 서경배)이 내수 진작에 적극 나선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온누리 상품권 임직원 지급, 협력사 결제기일 단축, 국내 여행 권장 캠페인 시행 등 전통 시장과 협력사와의 상생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15억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그룹사와 협력사 임직원에게 지급해 전통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조영남, KT&G 상상마당에 작품 기증

문화예술인 조영남 씨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 태극기' 등 그림 2점을 지난 26일 KT&G상상마당 춘천에 기증했다.이 날 행사에는 민영진 KT&G 사장 등이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증된 작품 '대한민국 태극기'와 '극동에서 온 꽃'은 KT&G상상마당 춘천의 아트센터 등에 전시돼 관람객들을 맞는다.

오리온, 에버랜드와 '어트랙션' 콜라보

오리온(사장 강원기)은 지난 24일 에버랜드와 '신규 어트랙션(attraction) 도입 및 마케팅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제과업계에서 제품과 테마파크 어트랙션을 연계해 공동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리온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에버랜드와 10월 오픈 예정인 어트랙션을 공동개발하고 향후 3년간 관련 부대시설 운영 및 마케팅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풀무원, 충북 공장 태양광 설비 본격 가동

풀무원건강생활(대표 여익현)은 충북 증평군 도안공장에 태양광 설비를 도입해 이달부터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태양광 설비의 총 발전용량은 195kW다. 태양광 집열판(모듈)은 일광이 용이하고 그늘이 지지 않는 건강기능식품 공장 옥상과 녹즙 공장 사무동 옥상, 폐수처리장 상부에 설치했다.

짜왕, 출시 두달 만에 라면시장 Top10 진입

농심 짜왕이 출시 2개월 만에 상반기 라면시장 탑 10에 등극했다.

27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농심 짜왕은 6월 한 달간 매출 128억원을 기록하며 신라면에 이어 두 달 연속 2위에 차지했다. 전달 매출과 비교하면 54%가 증가했다.

더욱이 짜왕은 두 달 간의 매출로 올해 상반기 전체 라면시장 순위에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짜왕이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하면서 상반기 라면시장 탑 10제품 중 7개를 농심이 차지했다. 전년



도 9위였던 불닭볶음면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나머지 3자리는 오뚜기와 삼양식품, 팔도가 하나씩 차지했다. 짜왕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농심은 6월 라면시장에서 유일하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63%) 2분기 내내 상승곡선을 그렸다. 오뚜기는 16.0%, 삼양식품은 10.9%, 팔도는 10.1%의 점유율을 각각 기록했다.

상반기 누적 점유율도 농심이 62.3%, 오뚜기 17.2%, 삼양식품 12.0%, 팔도 8.5%를 보였다.농심은 하반기에도 짜왕 판매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개그맨 정형돈을 짜왕 모델로 발탁해 TV광고를 선보였으며 대형마트 판촉행사, 온라인 고객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은미 기자

인터파크 '인터넷은행' 인가 작업 착수

인터파크(대표 김동업)가 연내 시범적으로 인가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의 인가 획득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인터파크는 23년만에 부여되는 은행 인가의 획득을 위해 회계법인·법무법인 등 외부 자문 기관 선임을 완료하고 9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인가신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은행 도입방안 발표 직후 구성한 그룹 내 TF(테스크포스)를 통해 내부적인 준비를 해왔다.TF팀은 이상규 사장이 맡았다.

인터파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터파크 은행'(가칭)은 전자상거래 기반 ICT기업인 인터파크가 주도하며 다양한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만들어가는 컨버전스 뱅크(convergence bank)·오픈 이노베이션 뱅크(open innovation bank)다. 인터파크는 지난 2008년 인터넷은행 설립 움직임이 있던 시점부터 인터넷 은행 사업을 준비해 왔다. /김성현 기자

생보재단, 강원서 자살방지 앞장

농약안전보관함 추가 지원 고성에 105개 등 총 723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27일 음독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105개를 강원도 고성군에 추가로 보급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정삼 강원도 행정부지사, 윤승군 고성군수, 김형실 고성군의회 의장,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 마을주민 등 100명이 참석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은 농촌 노인들의 충동적인 음독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을 각 가정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보관함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보건소 담당자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관함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상담서비스 등 사후관리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 강원도,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함께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5~6월 횡성 130개, 양양 160개, 영월 63개, 양구 165개, 화천 100개 등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했다. 27일 고성군에 105개의 보관함을 보급함으로써 강원도에 총723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



(왼쪽부터)유석쟁 생보재단 전무, 윤승군 고성군수, 함성식 야촌리 이장, 염혜정 한국자살예방협회 팀장, 김정삼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27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음독자살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을 전달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생보재단은 농약음독자살이 대도시보다 3배가량 높은 농촌지역에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충남·전남 등 전국 14개시군, 57개 마을에 2395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했다. 올해는 강원·전북·경북의 18개 시군에 1955개를 추가 보급한다.

유석쟁 전무는 "최근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으로 농약안전보관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보관함이 보급된 마을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건의 농약음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관광公, 중화권 언론인 150명 초청

메르스 극복 일상회복 홍보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의 유력 언론매체로 구성된 150여명의 언론인을 초청한다.

관광공사는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된 상황을 맞아 '방한시장 회복 100일 작전'을 펴 메르스에서 완전히 회복한 한국의 모습을 알리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초청행사를 마련했다.

이번에 초청되는 150여명의 중화권 언론인은 중국 CCTV, 대만 TVBS 등의 주요 TV매체와 중국 환구시보, 대만 중국시보, 홍콩 대공보 등의 일간지와 중국 신여행, 대만 TO'GO, 홍콩 U매거진 등의 관광전문잡지, 중국 텅쉰, 시나닷컴 등의 온라인매체로 구성됐다.

이들 방한 취재단은 한국 방문 일정동안 서울, 경기, 강원 일대 다양한 테마의 관광자원과 메르스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온 한국의 모습을 취재해 중화권 현지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지난 22~25일까지 진행된 중화권 여행업자 초청 행사 중 광명동굴테마파크를 둘러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최치선 기자 chisunti@

강강술래, 바캉스 인기메뉴 최대 65% 할인

길벗 추천 도서도 증정

외식문화기업 전한(대표 최종만)이 운영하는 한식숯불구이전문점 강강술래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매장 인기 메뉴로 구성된 바캉스세트를 8월 말까지 최대 65% 할인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상계·시흥·홍대·늘봄농원점에서는 바캉스1호(한돈양념500gX3팩)는 5만원, 바캉스2호(한돈양념500g+돼지양념750g+한우불고기500g)는 4만원, 바캉스3호(한돈양념500g+돼지양념750g+한우불고기500g+술래양념구이520g)는 7만원에 할인 판매한다.

신림·서초·역삼·여의도점에서도 바캉스1호(한우불고기500g×2팩+술래양념520g)는 5만원, 바캉스2호(술래양념520g+왕양념갈비560g+한우불고기500g)는 7만5000원, 바캉스3호(술래양념520g×2팩+왕양념갈비560g+한우불고기500g)는 10만원 파격가로 제공한다.



청담점에서는 바캉스1호(한돈양념500g+술래양념520g)를 5만원, 바캉스2호(민속양념500g×2팩)를 4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한편 휴가와 방학을 맞아 평소에 미뤄뒀던 독서를 하려는 이들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해외쇼핑 TOP LIST 710'과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를 선물한다.

'해외쇼핑'은 홍콩·오사카·방콕·괌 등 4개 도시의 263개의 쇼핑아지트와 꼭 사와야 할 BEST 아이템을 한 권에 담았고 '말했을까'는 파국으로 끝난 대화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짚어주며 소중한 관계를 해치지 않는 21가지 대화 기술을 알려준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휴가지 안전사고 응급치료 걱정 끝

동국제약

나들이 상비약 3종 추천



동국제약(부회장 권기범)은 휴가철 필수 상비약으로 마데카솔 분말, 타바겐겔, 덱스놀연고의 3종을 추천했다.

◆ 뿌리는 상처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마데카솔 분말(10g, 30g)'은 상처 부위에 손 댈 필요없이 간단하게 뿌려주면 끝나는 상처치료제다.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 있어 휴대 또한 용이하다.

◆ 타박상·벌레 물린곳엔 '타바겐 겔'

'타바겐 겔(15g)'은 '마로니에' 식물성분을 포함한 3가지 활성성분의 복합작용으로 멍과 붓기를 한 번에 없애 주는 제품이다. 무색의 투명한 연고제형으로, 해당 부위에 1일 수회 엷게 바른 후 마사지하듯이 피부를 가볍게 문지르면 된다.

◆ 일광화상·기저귀 발진 '덱스놀 연고'

'덱스놀 연고(15g)'는 프로비타민B5(덱스판테놀) 성분이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고, 피부조직 재생기능을 촉진시키고 여름철 강한 햇빛에 의한 일광화상에 효과적이다.

문의 : 동국제약 고객상담실 (080-550-7575) /최치선 기자

박기량 꿀피부 비결 '아쿠아링거팩'

리더스코스메틱

무보정 셀카서 공개 화제

롯데 자이언츠 소속 치어리더 박기량이 최근 무보정 셀카를 통해 피부 비결을 공개해 화제다.

27일 리더스코스메틱에 따르면 박기량은 주사기 모양의 리더스코스메틱의 마스크팩과 함께 무결점의 꿀광 피부를 선보이며 청순한 매력을 뽐냈다.

박기량이 사용한 마스크팩은 리더스코스메틱의 스테디 셀러 제품인 '인솔루션 아쿠아링거 스킨 크리닉 마스크'다.



박기량이 최근 무보정 셀카를 통해 피부 비결을 공개해 화제다.

이 제품은 청정 알프스 워터와 천연보습인자 성분이 마르고 거친 피부에 깊은 보습력을 전달해 촉촉하면서 생기 넘치는 피부로 개선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제품은 온·오프라인 브랜드숍과 전국 왓슨스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김수정 기자 ksj0215@

양배추·파프리카·유자청… 건강한 맛 듬뿍

CJ제일제당

'비비고 양배추 송송이김치' 2종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은 변화하는 식문화 트렌드에 발맞춰 맛과 원료를 차별화 시킨 신개념 김치 '비비고 양배추 송송이김치' 2종(사진)을 27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단순히 배추를 양배추로만 바꾼 김치가 아닌 세계 3대 건강식품인 양배추를 비롯해 파프리카, 피망, 유자청, 할라피뇨 등 새로운 재료들로 차별화했다.



파프리카와 유자청으로 맛을 낸 '달콤한맛'과 다진 할라피뇨로 매콤한 맛을 살린 '매콤한맛' 2종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으로 60g에 1000원이다. /정은미 기자

왕후의 기품 재현… 리미티드 에디션 선봬

LG생활건강

'후 공진향 : 미 럭셔리' 3종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후 공진향:미 럭셔리 리미티드 에디션' 3종을 출시했다.

궁중화장품 후는 국립 고궁박물관에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열리는 '조선의 왕비와 후궁 展'을 후원하면서 조선시대 왕실문화, 미용 비방, 왕후의아름다움을 재조명한다. 이를 기념해 왕후의 우아한 기품과 아름다움을 재현한 '공진향:미 럭셔리 골든 쿠션' '공진향:미 럭셔리 비비크림' '공진향:미 럭셔리 글로스 6종' 등을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김수정 기자

star bag




유재석 이어 FNC 行

FNC 엔터테인먼트가 유재석에 이어 **김용만, 노홍철**을 영입했다. FNC 측은 27일 "소속사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해오던 김용만과 노홍철은 FNC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방송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 결혼했어요

배용준(43)과 **박수진**(30)이 27일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애스톤하우스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소속사 키이스트 선후배로 알고 지낸 두 사람은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며 지난 5월 연인 사이임을 공개했다.

가족액터스와 전속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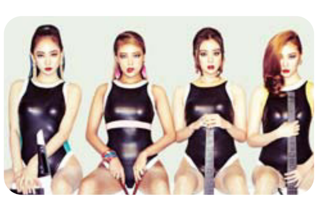


드라마 '프로듀사'의 배우 **노수산나**가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산하 연기 레이블인 가족액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노수산나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안정된 보금자리를 찾은 느낌이다. 좋은 작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라이브 앨범 발표



가수 **김동률**이 다음달 6일 라이브 앨범 '김동률 라이브(KIMDONGRYUL LIVE) 2012 감사/2014 동행'을 발표한다. 2012년과 2014년에 있었던 동명의 전국투어 공연 실황을 담았다. 2CD에 25곡의 노래를 담았다.



새 앨범은 '리부트'

걸그룹 **원더걸스**의 3집 앨범 타이틀이 공개됐다. 새 앨범 '리부트(REBOOT)'는 80년대 레트로 분위기의 음악을 수록한 음반으로 타이틀곡을 제외한 전 수록을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했다. 다음달 3일 정오 음원을 공개한다.

악역? 새로운 가면 쓴 거죠

영화 '베테랑' 유아인



가난하지만 꿈을 잃지 않는 청년. 힘든 현실에도 끈덕지게 살아가는 청춘. 유아인(28)의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다. '완득이'와 '깡철이', 그리고 드라마 '밀회'의 이선재로 뇌리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였다. 유아인이 차기작으로 "베테랑"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신선하게 들렸다. 류승완 감독과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궁금함이 컸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청춘을 대변해온 유아인이 악랄한 재벌 3세를 연기한다는 점이었다.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맡은 조태오는 더도 말고 덜도 아닌 '나쁜 놈' 그 자체다. 자신의 욕망과 본능에만 충실한 조태오에게 법이나 사회 정의 같은 통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약을 하고 폭력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돈이 있기에 떳떳하게 살 수 있다.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조태오의 철학이다.

"부산국제영화제에 내려갔다 류승완 감독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술 한 잔 하자고 하셔서 만났는데 갑자기 작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놀랐어요. 감독님 영화와 제가 잘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0대이면서 마초적이지 않지만 악역인 캐릭터라면 제가 떠오르겠다 싶더라고요(웃음). 의외의 캐스팅이죠. 그래서 전형적이지 않은, 의외의 모습을 지닌 악역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어차피 대중에게 비춰지는 건 제가 쓰는 가면이잖아요. '완득이'랑 '깡철이'로 할 만큼 했으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가면을 써보자고 생각했어요."

유아인은 조태오를 "개구리한테 아무렇지 않게 돌멩이를 던지는 천진난만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 말처럼 조태오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나쁜 짓인지 알지 못한다. 그저 내키는대로 행동할 뿐이다. 첫 등장부터 그런 조태오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광역수사대 형사 서도철(황정민)과의 첫 만남부터 강렬한 눈빛 대결을 펼치는 신이다.

"고민이 많았어요. 관객은 조태오가 악역이라는 정보는 알고 영화를 보잖아요. 그래서 조태오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생각이 많았죠. 더 날카롭고 섬뜩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로 그리고 싶었고요."

물론 조태오의 악행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그에게도 사실은 남모를 열등감이 있다. 하지만 유아인은 조태오의 열등감을 겉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조태오에게 사연이 생기는 순간 그가 지닌 악역 캐릭터가 희석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유아인의 바람은 단 하나, 조태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쁜 놈'으로 관객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것이다.

영화를 보고 나면 유아인이 이토록 얄미운 적 있었나 싶을 정도다. 유아인은 "조태오의 모습을 내면에서 찾을 수 없어서 많이 상상하며 연기했다"며 농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면의 악과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지 않나. 다만 조태오는 그런 갈등을 겉으로 드러내는 인물일 뿐"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다.

확실한 것은 '베테랑'에서도 유아인의 매력이 여전히 빛난다는 사실이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면서 연기하는 자유로움 말이다. "취향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자유롭게 의식하지 않고 연기하는 것이니까요."

/장병호 기자 solanin@
사진/손진영 기자 son@

안하무인 유아독존 재벌3세 변신
전형적이지 않은 악역 위해 노력
자유롭게 연기하는 게 내 스타일 "

영화 '암살' 제대로 터졌다

개봉 첫 주말 337만 동원 '도둑들'보다 빠른 속도

최동훈 감독의 신작 '암살'(사진)이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를 장악했다.

'암살'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주말 3일 동안 총 244만3171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2위를 차지한 '인사이드 아웃'과의 차이는 174만여명이다.

'암살'은 개봉 첫 날인 22일 47만7581명을 모아 올해 개봉 한국 영화 중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다. 이어 개봉 3일째 100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4일째 200만, 5일째 3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이는 최동훈 감독의 전작 '도둑들'은 물론 '괴물' '설국열차'보다도 빠른 속도다.



입소문을 타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던 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은 '암살'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로 한 계단 밀렸다. 그러나 주말 3일 동안 69만6821명의 관객을 추가해 누적 관객수 319만을 넘어섰다. 픽사 애니메이션 역대 흥행 순위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다.

3위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개봉한 애니메이션 '극장판 요괴워치: 탄생의 비밀이다냥'이 차지했다. 주말 3일 동안 21만7021명을 모았다. '연평해전'은 4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593만명으로 6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장병호 기자


THE
맛있는
One샷
푸드트럭을 타고 펼치는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요리배틀!
매주 목요일 밤 11시 E채널
t.cast

분단·한국전쟁·산업화… 한국근대사 한눈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소란스러운…' 展 개최 오늘부터 10월11일까지





최정화의 '내일의 꽃'(왼쪽)과 박석원의 '초토'.

국립현대미술관이 광복 70년을 기념해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 전을 7월 28일~10월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겪은 분단,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등 역사적인 사건 혹은 현상을 감각적으로 엮어 구성했다. 하지만 한국현대사를 연대기적으로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하고 불안정한 동시대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시 제목인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은 전시 구성상 나뉜 세 시대의 특징을 각각 반영한 것이다. 명사가 아닌 형용사를 열거한 것은 동시대를 하나의단어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고영훈·김기승·김아타·김환기 등 110여명 작가의 회화·드로잉·조각·설치·사진·서예 등 270여 점이 전시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전시작품 75% 이상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이다.

1부 '소란스러운'은 전쟁으로 인해 분단된 조국, 떠나온 고향과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전후의 삶을 다뤘다. 2부 '뜨거운'은 1960~80년대 단기간에 이루어진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부정된 근대성을 극복하려는 민주화를 주제로 했다. 3부 '넘치는'은 세계화된 동시대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삶을 담았다.

전시공간을 디자인한 최정화 작가는 1부 전시장을 어둡게 구성하고 벽면을 철망으로 엮었다. 이어 2, 3부 전시로 넘어갈수록 전시 공간은 밝아지고, 벽면 역시 판지나 합판·알루미늄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 각 시대의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전시장 한쪽 공간에는 가수이자 시인인 성기완이 기획한 '가상 라디오: 노래 따라 삼천리'가 흘러나온다. 신중현·산울림·조용필 등 시대를 풍미했던 대중가요를 믹싱해 관람객의 추억과 흥미를 자극한다. 문의: 02) 3701-9500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싱글즈 파티에 나선 멤버들

◆ SBS '썸남썸녀' 오후 11시 15분

'싱글즈 파티'를 떠난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가평으로 떠난 멤버들은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수영장을 찾아 물놀이를 즐긴다. 김정난과 채정안 팀으로 나눠 '수중 기마전', '동전 줍기', '릴레이 잠수'등의 커플 게임을 즐긴 뒤 '썸남썸녀'배 커플 요리 대결을 펼친다. 물놀이를 하면서 묘한 핑크빛 분위기를 자아냈던 김지훈과 서인영은 요리 대결에 들어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기싸움을 벌인다.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11시

연예계 대표 브레인 김정훈과 고주원이 연기로 한판 승부를 벌인다. 두 사람은 국어수업 시간에 '열등감'을 주제로 문학작품의 한 장면을 연기하며 맞대결한다.



◆ tvN '집밥 백선생'

오후 9시40분

방송직후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화제의 '만능간장'을 주제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레시피를 선보인다. 백종원은 만능간장 하나로 순식간에 12가지 반찬을 만들어낸다.



◆ tvN '현장토크쇼-택시'

오후 8시 40분

부드러운 미소와 짐승몸매의 소유자 천정명과 함께 바캉스를 떠난다. 30대 배우로서 살아가는 법부터 19년차 배우로서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정리=하희철 기자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8일 (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92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신체가 튼튼!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헬로 코코몽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이웃집 찰스 스페셜	50 오늘부터 사랑해 (79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32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36회)	00 지파이터스 30 EBS 뉴스 50 극한 직업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56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1 대 100	55 딱 너 같은 딸 (52회)	00 SBS 8 뉴스 55 SBS 뉴스토리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인터뷰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시사기획 창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너를 기억해 (12회)	00 화정 (32회)	00 상류사회 (16회)	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터미네이터>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방학 특선 글로벌 다큐멘터리 5부작 인간과 우주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썸남썸녀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40 독립영화관 <명왕성>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뮤비뱅크 2 (6회)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냉장고를 부탁해 (37회) (재)	20 집밥 백선생 (10회) (재)	30 2015 테이스티로드 (23회)		00 무비스토커 (3회)	 ◆ 프로야구 (18:30) 한화 vs 두산 (SPOTV+) NC vs 삼성 (MBC SPORTS+) LG vs 롯데 (SKY SPORTS) KT vs 넥센 (SBS SPORTS) SK vs KIA (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40 오 마이 갓 (28회) (재)	30 오늘 뭐 먹지?	00 나는 자연인이다 (18회)	30 내셔널 트레져 2	
20시	50 JTBC 뉴스룸	40 현장토크쇼 TAXI (389회)	30 유미의 방 (5회)	00 스피노사우루스 vs 티라노사우루스		
21시	4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37회)	40 집밥 백선생 (11회)	00 올리브쇼 2015 (10회)	00 <순간포착!위험한 동물들> (7회)		
22시			00 오늘 뭐 먹지? 30 2015 테이스티로드 (23회)	00 빅데이터 마이닝 (1·2회)	00 땡스 포 셰어링	
23시	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54회)	00 신분을 숨겨라 (14회)	30 주문을 걸어	00 <히틀러의 메가프로젝트> 비밀벙커, 늑대굴		
24시	20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37회)	20 현장토크쇼 TAXI (389회) (재)	30 MAPS (5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18회)	20 캐리	

'구관이 명관' 복귀 베테랑 K리그 이끈다

박주영·루이스·이근호 대활약 예고


박주영


루이스


이근호

10경기를 남겨둔 K리그에서 국내 무대로 복귀한 베테랑들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 돌아온 박주영 득점왕 겨냥

해외 무대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다가 올시즌 친정팀인 FC서울로 복귀한 박주영은 7월에만 벌써 5골을 터뜨렸다. 리그에서만 6골을 기록중이다. 득점 1위인 에두가 11골을 끝으로 중국으로 떠난 상황에서 2위 그룹인 8골과는 불과 2골 차다. 남은 경기에서 꾸준히 득점을 올린다면 득점왕도 가능한 상황이다.

박주영이 넣은 골은 영양가도 높다. 2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2015 K리그 클래식 23라운드 홈경기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37분 추가골(시즌 6호)을 터뜨려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22일 포항과의 FA컵 8강전에서는 홀로 2골을 몰아쳐 팀의 4강 진출을 견인했다. 간판 공격수 데얀이 떠난 뒤 골가뭄에 시달렸던 서울로서는 박주영의 영입이 신의 한수가 된 셈이다.

변수는 박주영의 무릎이다. 오른쪽 무릎 연골 부위에 이물질이 생겨 4월 중순 이후 1개월 가량을 쉬었다. 6월에 그라운드로 돌아왔지만, 무릎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경기력은 올라오지 않았었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기대가 앞선다. 컨디션은 점점 오르고 있다. 올스타전 브레이크 기간 휴식으로 폼이 제대로 올라오며 2경기에서 3골을 넣었다.

K리그 클래식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동아시안컵 일정으로 2주간의 휴식에 들어간다. 무릎이 좋지 않은 박주영에게 2주간의 추가 휴식은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다.

◆ 루이스 친정팀 복귀하자마자 역전승 견인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전북 현대는 시즌 중반에 큰 위기를 맞았다. 공격의 핵심이었던 에두와 에닝요가 팀을 떠난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북 현대는 대체 자원을 뽑아야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러나 최강희 감독은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었다. 2012년까지 팀에서 활약했던 루이스(34)를 영입했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5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3라운드 수원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되자마자 37분에 동점골을 넣은 뒤 42분에는 이재성의 결승골을 도우며 극적인 2-1 역전승을 연출했다. 루이스는 복귀하자마자 리그 2위인 수원과의 격차를 승점 10점차로 벌리는데 큰 공을 세웠다.

루이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에서 뛰며 K리그 통산 124경기 26골 24도움을 기록했다. 팀을 2009, 2011년 정규 우승으로 이끌었고 2009년엔 13도움으로 도움왕에 등극하기도 했다. 빠른 돌파와 현란한 드리블, 정확한 패스 등을 갖춰 당시 이동국, 에닝요 등과 함께 전북이 '닥공(닥치고 공격) 축구'를 완성하는데 한 축이 됐다.

K리그 클래식 2연패를 노리고 있는 최강희 감독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게 됐다.

◆ 이근호 AFC참가 못해 K리그 집중

최강희 감독조차 놀랐다고 말할 정도로 전북의 이근호 영입은 깜짝카드다. 전북은 에닝요의 자리를 루이스로 메웠지만, 에두가 떠난 최전방 공격 자원의 대체자 선정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시간도 촉박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등록은 31일 마감이지만 AFC 챔피언스리그 등록은 25일까지였다. 전북은 이를 카타르에서 뛰는 이근호(엘자이시)의 6개월 단기 임대라는 답으로 풀었다.

이근호는 K리그에서 157경기 53골을, J리그에서 107경기 39골을 넣었다. A매치에서는 76경기 19골을 넣었고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기도 했다. 울산 현대 소속이던 2012년에는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었다. 검증된 공격 자원이자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공격수다. 중동에 가기 전 K리그 챌린지 상주 상무에서 뛰었기 때문에 K리그 클래식에는 3년여만의 복귀다. 이근호는 AFC챔피언스리그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해 K리그 클래식에만 기용된다.

/하희철 기자 bbuheng@metroseoul.co.kr

유소연 4위… LPGA 최다승은 다음 대회로

렉시 톰프슨, 트로피 거머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 선수 시즌 최다승에 도전하고 있는 태극낭자들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27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의 블라이드필드 골프장(파71·6414야드)에서 열린 마이어 LPGA 클래식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유소연(25·사진)이 버디 6개에 보기 1개를 묶어 합계 15언더파 269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한국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성적이다.

박희영(28·하나금융그룹)은 합계 11언더파 273타를 쳐 공동 8위에 자리했다. 세계랭킹 1위 박인비(27·KB금융그룹)는 버디는 2개에 그치고 더블보기 1개 보기 5개를 쏟아내는 부진으로 공동 44위(4언더파 280타)에 그쳤다.

한국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2006년과 2009년에 세운 11승을 넘어 LPGA 한 시즌 최다승(12승) 기록을 작성할 수 있었으나 다음 대회를 기약하게 됐다.

이날 우승은 합계 18언더파 266타를 기록한 렉시 톰프슨(미국)에게 돌아갔다. 톰프슨은 올시즌 첫 승이자 LPGA 투어 통산 5승을 기록했다.

3라운드까지 선두를 질주했던 리젯 살라스(미국)는 1타를 줄이는데 그쳐 공동 2위(17언더파 267타)로 밀려났다.

한국 선수들은 31일 스코틀랜드에서 개막하는 메이저대회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시즌 12승에 도전한다. /하희철 기자



2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쿠퍼스타운 클라크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15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입회식에서 크레이그 비지오(왼쪽부터), 존 스몰츠, 랜디 존슨, 페드로 마르티네즈가 자신들의 명판을 들어보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MLB 명예의전당에 4명 공식 입성

랜디 존슨·페드로 마르티네즈·존 스몰츠·크레이그 비지오

메이저리그(MLB) 명예의 전당에 랜디 존슨(52)과 페드로 마르티네스(44), 존 스몰츠(48), 크레이그 비지오(50)가 입회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쿠퍼스타운의 클라크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15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입회식에 주인공으로 나섰다. 선수 출신 4명이 명예의 전당에 입회한 건 1955년 이후 60년 만이다. 당시 조 디마지오, 개비 하트넷, 테드 라이언스, 데이지 밴스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이날 입회식에는 약 5만명의 팬이 참가했다. 역대 5번째로 많은 팬들이 참가한 입회식이다.

2m8㎝의 장신 투수로 통산 303승, 탈삼진 4875개를 기록한 존슨은 명예의 전당 입회 투표에서 전체 549표 중 534표를 휩쓸어 97.3%의 지지율을 얻었다. 역대 8번째로 높은 득표율이다.

219승 100패, 평균자책점 2.93을 기록한 마르티네스는 500표를 받아 91.1%의 득표율로 무난히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메이저리그 최초로 200승·150세이브를 달성한 스몰츠는 '토미존서저리(팔꿈치 인대접합 수술)'를 받은 투수 중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개인 통산 3060안타를 기록한 비지오는 3수 끝에 82.7%의 득표율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하희철 기자

강정호 무안타 추신수는 결장

메이저리거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나란히 숨을 골랐다.

강정호는 2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벌어진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5번 타자 유격수로 나서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시즌 타율은 0.286(259타수 74안타)으로 떨어졌다.

유격수로서 수비는 안정적이었다. 1회에는 안타를 치고 2루로 달리던 브라이스 하퍼를 여유 있게 태그 아웃했다. 7회에는 1사 1,3루의 실점 위기에서는 정면으로 굴러온 윌슨 라모스의 타구를 쓸어 담아 병살을 잡아냈다. 피츠버그는 에이스 게릿 콜의 역투를 발판 삼아 3-1로 이겼다.

추신수는 LA 에인절스와의 원정경기 선발명단에서 제외됐다. 그의 자리에는 좌타자 조시 해밀턴이 기용됐다. 19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 이후 6경기 만의 휴식이다. 추신수가 빠진 텍사스는 7-13으로 완패했다. /하희철 기자

Supreme Court Illegal Act Reform… Overwhelmed Lawyers' Business

대법원發 사법개혁 산호탄…발칵 뒤집힌 변호사업계

The Lawyers' business is overwhelmed after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success conservatism stipulation is invalid in a criminal case.

Korea Lawyer Association is claiming that this cut should be taken back. Success conservatism stipulation is extra money given to the lawyer after winning a case.

According to the law firms on the 26th, Mr. Huh has given 100 thousand dollars to the lawyer which caused the problem of receiving excessive amount. Therefore, h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lawyer and this was partially accepted by the court.



형사 사건과 관련해 체결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7월 23일 이후부터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체결하더라도 무효라 지불할 의무가 없다. /연합뉴스

The decision made by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success conservatism stipulation is no longer valid according to civil law 103.

According to this decision, success conservatism stipulation is invalid and there is no need to give such extra money after winning the case starting 23rd of this month.

/파고다어학원 Chris Kim(김윤관) 강사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변호사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을 파기하라"는 성명을 냈다.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경우 의뢰인이 착수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3일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3일 이후부터는 체결하더라도 무효라서 지불할 의무가 없다.

PAGODA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9						1	5
	6			5	1	3		
				3	4	8		
	2	5		1			4	8
				7				
1	4			2		6	3	
		6	3	9				
		9	1	6			5	
2	3						8	

5					8			
2		9				8	5	6
7		4			6			
	7		4					1
		3	1		2	7		
6					7		3	
			8			9		4
8	9	7				2		3
			7					8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3	9	4	7	8	6	2	1	5
7	6	8	2	5	1	3	9	4
5	1	2	9	3	4	8	6	7
9	2	5	6	1	3	7	4	8
6	8	3	4	7	9	5	2	1
1	4	7	8	2	5	6	3	9
4	5	6	3	9	8	1	7	2
8	7	9	1	6	2	4	5	3
2	3	1	5	4	7	9	8	6

5	3	6	2	9	8	1	4	7
2	1	9	3	7	4	8	5	6
7	8	4	5	1	6	3	9	2
9	7	8	4	5	3	6	2	1
4	5	3	1	6	2	7	8	9
6	2	1	9	8	7	4	3	5
3	6	5	8	2	1	9	7	4
8	9	7	6	4	5	2	1	3
1	4	2	7	3	9	5	6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새로운 직업 찾고 싶은데 확신 서는게 없어요
교육계 진출 도움… 한우물 파듯 매진하시길

star4 여자 82년 10월 27일 음력 5시반

Q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자 1982년 10월 27일생이며 음력 새벽5시반입니다. 저는 항상 고민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잘 웃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요. 늘 울적하고 외롭습니다.

새로운 직업으로 전향하고 싶어서 돈을 들여 배우고 교육받지만 제 마음의 확신이 없는지 직업이 되는 것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배우자도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좋은 분과 결혼해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요? 무더운 날씨 건강챙기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A 재물이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물질만능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돈이 곧 생명이요 체면이고 사는 목적입니다. 이는 필자의 견해가 아닙니다.

돌고 도는 시간의 흐름에서 반복되는 순환의 기운이 도래되는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 영향 받는 현실입니다.

60갑자(甲子)라는 말에 갑자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말합니다. 60년마다 갑자년(甲子年)의 기운이 같은 글씨로 바뀌는데 60년 마다 바뀌는 시작의 첫해는 같은 갑자년(甲子年)이나 권력 즉 관의 시대가 있기도 하며 재물 즉 돈의 시대가 열리기도 하는데 현재는 하원갑자(下元甲子)로 재(財)의 시대가 반영되는 흐름에 있다고 보며 돈이 대세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삶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생활의 물질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직업을 선택 할 때 현대적인 방법으로는 적성검사를 하고 자신의 성정과 특기 능력을 감안하여 비전을 보고 선택하는데 사주8자속에 직업을 나타내는 오행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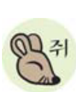
재물은 재성(財星)으로 그중에서 정재(正財)가 귀하에게 해당되며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봉급과 같아 직장생활이 적합합니다. 성정은 긍정적이지만 비현실주의로 항시 만리장성을 쌓게 되어 허망합니다. 교육계로 진출하는 것이 천직이 될 수 있으나 무엇을 하건 한 우물을 파듯 해야 하고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관성(官星:직장과 이성을 나타냄)이 힘을 받을 때 취업과 배우자감과 인연이 되는데 지면상 다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결론을 내놓고 하다보면 공연히 무기력해지고 싫증을 내어 중도하차하게 되는데 신념을 내려놓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28일 (음 6월 13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유익한 하루가 됩니다. **60년생** 새로운 발상이 많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72년생** 기운이 없고 무언가를 해도 의욕이 없습니다. **84년생** 반가운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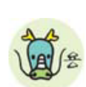
49년생 업무 등에서 상당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61년생** 자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도록 하세요. **73년생**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85년생** 주변 사람을 관찰하도록 하세요.



50년생 첫만남의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62년생**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습니다. **74년생** 업무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86년생** 아무도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날입니다.



51년생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63년생** 머리회전이 잘 되는 날입니다. **75년생** 도전정신이 왕성해 지는 하루입니다. **87년생** 새로운 프로젝트나 신제품개발을 하면 길합니다.



52년생 최근에 만난 이성을 조심하세요. **64년생**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76년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화를 면합니다. **88년생** 사방에 고통과 어려움이 펼쳐져있습니다.



53년생 끈기있게 기다려보세요. **65년생** 노력을 해 보아야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77년생** 큰 성과를 올리기 힘든 하루입니다. **89년생** 앞으로 나아갈수록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54년생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66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세요. **78년생** 회사에서 부하직원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90년생** 상대방이 소홀이 대접 할 수 있습니다.



55년생 타인이 보는 모습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세요. **67년생** 자기 자신을 꾸미는 일이 중요합니다. **79년생** 사기를 조심하세요. **91년생** 환상속에 살고 있는자들의 말은 신뢰감 이 없습니다.



56년생 나름대로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68년생** 자신을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80년생** 매사에 조심하게 행동하세요. **92년생**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언을 할 때 입니다.



57년생 쉽게 말했다가 쉽게 후회하게 됩니다. **69년생** 누군가를 추천해주는 자리가 생깁니다. **81년생** 인생의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93년생** 뒤에서 밀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8년생 싸움에 휘말리지 마세요. **70년생**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82년생** 사랑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할 운입니다. **94년생** 연애운이 굉장히 좋은 하루입니다.



59년생 화해를 하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세요. **71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세요. **83년생** 안으로 손해와 좌절이 숨어있는 시기입니다. **95년생**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최치선의 세상만사

지난 21일 일본 정부는 2015년 방위백서를 각의에서 의결했다. 여기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어 표기)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11년째 토씨하나 바뀌지 않고 들어 있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당일 가나스기 켄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인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처음 기술한 이래 11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일은 고작 '항의'뿐이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동안 수많은 매체와 방송에서 다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 침탈 야욕은 더 이상 간과하면 안된다. 지금까지 일본은 18종의 교과서와 방위백서 그리고 해외광고 등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마디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무력침탈 빼놓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한 것이다.

일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자료는 무수히 많다. 그중 최근에 발견된 고지도는 우리의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 하는 결정적인 자료다. (사)우리문화가꾸기회(회장 서영훈)에 따르면 이 지도는 18세기 일본의 유명 유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하야시 시헤이(林子平·1738~1793)가 제작한 1802년 판 대삼국지도(大三國之圖·세로 72x가로51cm)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상징하는 노란 색깔로 함께 칠해져 있고 지금까지 발견된 고지도 중 유일하게 독도 이름과 함께 '조선의 것'(朝鮮ノ持之)'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야시는 당대에 가장 저명한 지도 편찬자였다.

또한 일본 해군이 작성한 조선 동해안도(1876년)에도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조선의 부속도서로 표기하고 있다. 이처럼 20세기 이전의 국내외 문헌과 지도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제국 합병을 전후해 외국 문헌들에서 하나 둘 독도가 일본 땅 다케시마로 왜곡 표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첫 번째로 희생된 영토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2의 한반도 침탈 행위라고 비난한바 있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 틀림없다. 그런데 독도아카데미 소속 대학생들이 국내 대학교 도서관 검색 결과, 수입된 외국문헌의 지도 80% 이상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아베 정권의 주장에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까지 명시했다. 그후 아베정권 들어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데까지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금의 상황을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치밀하고도 계획적이며 집요한 단계를 밟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한국에 대해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다. 일본이 줄기차게 독도를 자국의 땅이라고 홍보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대통령과 정부는 투명인간처럼 조용하다. 국민들만 일본의 폭거에 힘겨운 시위를 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부장

社說

사내유보 헐어서라도 고용절벽 허물어야

30대그룹 내부유보가 1년 사이 38조원 증가했다. CEO스코어가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한 30대그룹의 사내유보는 710조여원에 이른다. 공기업의 유보금도 제법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출자기관의 유보금이 2013년 기준 67조여원으로 집계됐다. 민간대기업과 공기업의 유보금을 합치면 지금쯤 800조원을 헤아릴 듯하다.

유보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재무구조가 건실하다는 것이니, 대규모 적자와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렇지만 그것도 정도의 문제이다. 어떻게 해서 이토록 큰 규모의 유보금을 갖게 되었을까 궁금해진다. 아마도 하도급대금 지급이나 주식배당에 인색했거나 제품값을 너무 비싸게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인력 채용을 기피한 결과가 아닐까 묻고 싶다. 실제로 10대그룹의 정규직 직원은 지난 1년 사이 9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수십조원의 사내유보가 늘어나는 동안 고용인원 증가폭은 1만명도 안된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예로부터 사원들을 혹사시키기로 악명 높다. 사원들은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 때문에 사원들의 사생활은 사실상 없어지고 창의적 에너지는 고갈된다. 그러니 대기업들은 더는 사내유보 축적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고용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그래야만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고 기존 사원들의 근무조건도 개선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사원들의 창의적 역량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7일 재벌총수와의 간담회에서 고용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대책회의도 열렸다. 이제는 정말로 대기업이 대통령의 당부에 화답할 때이다. 청년고용절벽을 허물기 위한 대기업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삼성물산 주가 속락 왜?



기자 수첩
임 은 정
<산업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됐지만 아직 주식매수청구권이란 벽을 넘어야 한다.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양사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합병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합병안이 가결된 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다음달 6일까지이며 보통주 기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은 5만7234원이다.

27일 삼성물산 종가는 5만79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과 불과 666원 차이가 난다.

제일모직은 지난 24일부터 44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방어에 나섰지만 이날과 27일 종가는 16만9500원선에 그쳤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주총이 끝난 후 "앞으로 합병법인 출범까지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다"며 "합병에 반대한 주주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최 사장은 삼성물산의 주식이 하락하면서 주주들의 피해가 커지자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또한 최 사장이 말한 주주와 소통을 늘리는 방안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는 우선주 주총 소집요구를 위해 다시 세력 규합에 나섰다.

아직 삼성물산이 합병에 대해 안심하긴 이르다.

삼성물산이 주총 전 주주를 직접 방문해 합병의 당위성을 설득했던 그 열정처럼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바란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 매도인이 안 해준다면?

생활 법률

아파트에서 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A씨는 최근 도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최근 잔금까지 모두 치렀지만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서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A씨는 '매도인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A씨가 안전하게 아파트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도인이 소유권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매수인인 A씨는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된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전제로,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멸실하거나 처분하는 등 사실적·법률적 변경이 생길 가능성을 방지하는 조치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놓으면 추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획득한 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 제기했다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권리 실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법적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처분은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해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즉 매수자가 입게 될 손해를 예방하는 목적이다.

반대로 매수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역으로 으름장을 놓는 경우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는 매도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고,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 한정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지급한 계약금도 매도인에게 돌아간다. 단 상대방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 전 계약해제가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번져 의미 없이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미란 기자 actor@

인사

■ 기획재정부 <국장급>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재정국장 지규택 △고위공무원 국외직무훈련 윤정식

■ 환경부
◇전보 <과장급>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담당관 김준기 △환경정책관실 환경기술경제과장 김정환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장 홍동곤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박연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서인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이창규 △배출권거래제 소송대응TF 팀장 이형섭 △환경정책관실 환경산업과장 안세창

■ 국민권익위원회
◇전보 <과장> △복지노동민원과장 장태동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박중근

■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겸 국제농업기술대학원장 정철영 △약학대학장 이봉진 △약학대학 교무부학장 성상현 △약학대학 학생부학장 오유경 △환경안전원장 박용호

■ 한양대 <서울캠퍼스>
△학생부처장 임영종 △관리부처장 박종대 △학생생활관 부관장 백종호 △기획평가팀장 김연산 △미디어전략센터장 권경복 △대학원팀장 김은미 △창의융합교육팀장 이원걸 △학생지원팀장 이철우 △학사정보팀장 박순신 △정보인프라팀장 김진태 △국제처 국제팀장 노정희 △LINC사업팀장 문영호 △학술정보운영팀장 서승환 △박물관 행정팀장 조남철 △사회교육원 행정팀장 김상천 △연구진흥팀장 서진석 △산학협력팀장 장기술 △공과대학 행정1팀장 이성섭 △공과대학 행정2팀장 이선례 △공과대학 행정3팀장 한정희 △공과대학 행정4팀장 한상년 △사회과학대학 행정팀장 전승환 △정책과학대학 행정팀장 박신흥 △교무팀장 김인곤 △창의융합교육팀장 서동호 △ERICA 국제팀장 김경옥 △국제문화대학 행정팀장 신성용



순하디
순하다
우리들의 가벼운 | 순하리 처음처럼 복숭아
14도로 한번 더 순하게 더 깔끔하게, 순하리 처음처럼
알코올 냄새 NO NO, 최적화된 14도 블렌딩으로 찾아낸 RTS 타입의 칵테일
새로운 음주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RTS (Ready To Serve) : 특별한 제조 없이 바로 칵테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술
순하리
처음처럼
처음처럼 부드럽게
복숭아처럼 달콤하게
복숭아
※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